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매 순간 찬양하며 높이 드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더 많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다함께 예배 드리게 하라게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29절

신실한 교인, 성실하게 교회 출석하면 건강해진다!

TGC, 스티브 베이트먼 목사가 말해주는 성실한 교회 출석이 주는 건강한 혜택

연구나 조사 결과 없이도, 교회 출석률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신실한"(committed) 교인에 게조차 예배 참석은 이제 하나의 선택 사항이 되었고, 한 달에 두 번 정도만 교회에 온다.

그러나 이런 현실에 대응하겠다는 명목으로 기대치를 낮춰서는 안 된다. 바른 해결책은 등록 교인을 향한 교회의 높은 기대치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첫째, 발열과 가끔 있는 가족 휴가는 교회에 빠지는 적절한 이유이다. 따라서 성실한 교회 출

석은 다음에 해당한다. 직장이나 자녀의 학교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도 주일 공적 예배 참석을 막아서는 안 된다. 둘째, 출석 교회가 복음에 충실할 때만 예배 참석이 유익하다. 마지막으로 예배 참석의 이점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든 경우에 다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다.

그러함에도 매주 예배 참석과 긍정적인 혜택 사이에는 부인할 수 없는 상관관계가 있다. 무려 아홉 가지이다(9 Benefits of Faithful Church Attendance).

1. 교회 출석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성실한 교회 출석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관심을 유일하게 참되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선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전 10:31). 그러나 모두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예민하게 집중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데.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에 사랑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폐하지 말라"(히 10:24-25)고 명하신다. 공적 예배에 대한 이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이 혜택이 우선시되지 않는다면, 성실한 교회 출석이 가져다주는 다른 모든 혜택은 다 우상



에 불과하다.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교회에 출석해야 한다.

2. 교회 출석은 이웃 사랑이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증가시키고 또 우리를 보다 더 예수님처럼 만들어가신다. 따라서 교회에 나가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준비하신 은혜의 수단에 참여할 방법이 있을 수 없다. 분노를 조장하는 문화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인

내 그리고 친질의 미덕은 수요는 많으면서도 공급이 부족하다. 마틴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교회 출석이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이웃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

3.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똑똑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명하신다(마 22:37). 성경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어휘, 문법, 역사 및 지리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충명을 주시는 주님은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기를 기대하신다(딤후 2:7).

두뇌 운동은 몸과 마음에 좋다. 독서는 어린이의 지능을 높이고 성인의 인지 기능을 보충함으로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지 기능 저하의 위험을 줄여준다.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두뇌를 훈련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3면으로 계속)



자녀들 명문대 입학할 기회 높이기 위해 배아 유전자 검사 도입?

MIT/CNA, 미 최상위 계층 자녀 배아 유전자 검사 도입

미국인들이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높이기 위한 배아 유전자 검사에 찬성할 것이라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Americans are ready to test embryos for future college chances, survey shows: For some people, college prep might start in a test tube — and ethicists are freaking out, Surprising number of Americans would screen embryos for intellectual aptitude, survey says).

몇몇 생명윤리 전문가들과 경제학자들은 자궁에 배아를 이식하기 전, 체외수정과 유전자 검사에 대한 여론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조사를 설계했다. 조사는 응답자들에게 임신한 아이가 자라서 좋은 대학에 다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아 유전자를 검사하고 편집할 것인지를 물었다.

응답자들은 그들이 이미 체외수정을 하고 있으며, 배아의 유전자 검사 혹은 편집을 통해 자녀가 상위 100위 안에 드는 대학에 다닐 기회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 가정했다.

배아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3%라는 것을 알게 된 그들은 가능성을 5%로 향상시킬 수 있는 유전적 개입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8%가 학업 성취도를 위해 체외수정 배아를 유전적으로 선별할 것이라고 답했고, 62%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28%의 응답자들은 체외수정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자녀가 일류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한 반면, 72%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6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3면



푸른초장 홍귀표 목사

4면



기독교명저의 초대 이윤석 목사

8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Sharing Bread for Soul (SBS)
생명의 빵 나누기 운동본부
말씀과 빵을 나누며 영혼을 살립니다
문의 강태광 목사 (323)578-7933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김스전기왕)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31)

읽고 쓰고 마음에 새기는

킹덤성경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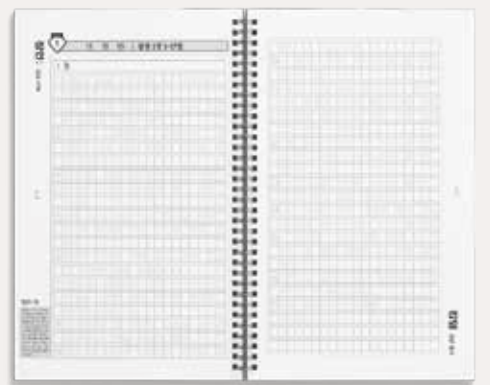
말씀은 시간의 벽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만져 줍니다. 지친 날들에 은혜를 더해 새 힘을 얻게 하고, 상한 심령을 가만히 안아 줍니다. 말씀을 따라 한 구절 한 구절 쓰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과 은총을 마주하게 됩니다. 말씀이 주는 축복의 선물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문안내
개인주문: www.hisfingermall.com
단체주문: info@chpress.net / 718-886-4400



(일반용)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바르고 예쁘게 써보세요.



(청소년용)



영어성경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네모 칸마다 흐린 글씨위에 또박또박 한글로 예쁘게 써보세요.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생명과 공동체

"신약성경에서 중심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다양한 답변이 주어졌다. 필자는 주저함 없이 "New Creation"이라고 대답했다. Th.M 과정 수업 중에 있었던 질문과 답변이었다. 새로운 피조물을 신약성경의 주제로 여겼던 것은 총신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사건이었다. 여름방학 때 비상 연락망을 통해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같은 과 친구 한 명이 여름 수련회에 갔다가 익사했다는 것이다. 남편이 죽은 사람을 과부라고 한다. 아내가 죽은 사람을 홀아비라고 한다.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을 고아라고 한다. 자녀가 죽은 사람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딱히 그 단어는 없다. 자녀를 먼저 잃은 사람의 슬픔은 표현할 수 없기 때문 이리라.

장례식에서 목사님이신 친구의 아버님이 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천국에서 만나면 된다고 하시면서 슬픔을 감추시고 감사를 드러내셨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날 그 장례식 때의 광경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답한 깊은 배경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다른 단어로 영생 또는 생명은 죽을 목숨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다. 이 생명은 어떤 세력에도 결코 꺾이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다. 이 생명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드러내므로 그 진정성을 보인다. 이 웅장한 선연을 들어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8-10)

이 생명의 중요한 목표는 공동체이다. 인생의 큰 난제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한 세상의 공동체는 무슨 동우회, 무슨 동아리 등이 있겠지만 그 결속력이 어디까지 이겠는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공동체는 다윗과 요나단이 보여 주었듯이 자기의 마음과 생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이런 공동체만이 무너진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치유하는 유일한 해결책이다.

Z세대 새 친구 만들기 너무 힘들다!

BBC, 팬데믹 후 폭풍, Z세대 타인과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경험 상실로 대안 마련한다고 보도

기성 세대에게 일터는 새로운 타인을 만나는 유일한 고리였다. 그렇다면 팬데믹으로 사무실 근무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보다 현명해야만 새 친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Z세대의 우정은 전례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학교

에 있는 젊은 Z세대는 고립됐고, 혼란을 겪어야 했다. 막 직장에 들어간 Z세대 또한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만남을 동료들과 단절됐다 (Can Gen Z make friends in the pandemic era?)

LA의 시장 조사 기업인 '토크 쇼퍼'의 수석 연구원, 조이스 추인캄은 '팬데믹 기간에 생긴 밀레니얼과 Z세대의 우정 변화'에 대한 인터뷰에서 "팬데믹 속에서 지속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과거 젊은 세대에게 학교와 직장은 "지속적으로 타인과 뭔가를 공유하는 경험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팬데믹으로 그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미리암 키르마이어는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일반적인 방식의 친구 사귀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에서 사회의 첫발을 떼고 있다"고 말했다.

Z세대가 팬데믹 속에서 사회적 연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연구도 있다.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인 제니스 맥케이브는 친구 네트워크가 성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연구해왔다.

2016년, 그녀는 미국 뉴햄프셔에 있는 대학 3개의 학생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구 참가자들이 막 직장에 들어간 2021년에 두 번째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런데 두 번째 인터뷰에서 그녀는 팬데믹이 우정을 유지하고 새로운 친구를 만드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했다. 그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게 (팬데믹 동안) 정말 어려워졌기 때문에 친구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관계를 축소시키는 거시적 현상은 누구에게나 좋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Z세대에게 더욱 부정적이다. 그들은 막 학교를 졸업하고,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하고, 노동 시장에 편입됐다. 여러 가지 상황이 중첩되며, 인생에서 압도적으로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추인캄은 "이들은 이러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한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이 약해지고 있다. 맥케이브에 따르면, 젊은 시절 의미 있는 우정을 통해 시야를 넓히는 것은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는 사람들이 자아를 찾아가는 젊은 성인기에 친구는 한 사람이 더 낮거나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친구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들여다 보게 되고, 자신을 파악하게 됩니다."

만나기 어려워졌다고 해서, Z세대가 친구를 못 사귀는 것은 아니다. 많은 Z세대가 자신들에게 의미가 큰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무실에서 우정을 키우던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고 있다.

추인캄은 연구를 통해 친구 사귀기 앱 '범블 BFF' 나 페이스북 그룹 등으로 새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 Z세대가 밀레니얼보다 더 개방적임을 알게 됐다. 그러나 연구 참가자들 중에는 친구 사귀기 앱을 통한 관계는 보통 1대1 만남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보다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인캄은 Z세대는 취미를 중심으로 모이고 1대1 만남 중심의 앱보다 "부담이 적은" 페이스북 그룹에서 친구를 만들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지만, 자신만의 앱이나 온라인 허브를 만든 Z세대도 있다. 시중의 앱이나 페이스북 등이 자신이 처한 도전적인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2020년에 뉴욕 컬럼비아 대학에 다니던 제이미 리가 그 예다. 당시 그녀는 온라인으로 진정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그해 여름 향후

정식 앱이 된 '플록스'의 베타 버전을 만들었다. 개인으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친구 그룹 단위로 교류하는 서비스다.

리는 '테크크런치'와의 인터뷰에서 이것이 Z세대에게는 보다 진정성 있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미 알던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보다 진실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보다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줄 것이고, 그로 인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뉴욕에 있는 마리아 메이즈가 자신만의 온라인 친구 찾기 허브를 만든 계기는 매우 독특하다. 2021년 그녀는 낯선 이로부터 "네 친구들이 너만 빼놓고 파티를 연다"고 고발하는 틱톡 영상을 받게 됐다.

당시 23세였던 그녀는 영상을 접한 후, 자신에게 익숙한 인터넷을 활용해 새로운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김재삼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물: www.lachristianbookcenter.com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사역자 청빙 공고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는 보수 교단인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교회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사역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체 성전을 가진 교회에서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주실 교육부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를 청빙 하고자 합니다.
직책: 교육 담당 및 교회음악 담당 사역자
청빙 대상 및 자격: (1) Part Time or Full time 사역자: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거나 수확중인 분 (2) 교회음악 담당자는 교회음악 전공자
지원 자격: (1) 영어와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분. (2)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우대 또는 미국내 합법적 체류로 근로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영주권 후원 가능)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자기 소개서(신앙 고백서, 사역 경험) (3)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 증명서 (4) 목사 안수 증명서 또는 소속 교단 증명서 (5) 추천서 2부(현재 섬기는 교회의 담임목사 추천서 및 평신도 리더 추천서) (6) 설교-최소한 2편 이상(설교 주스 Link 혹은 DVD나 구글 드라이브 등을 통해) (7) 가족사진
지원 방법: (1) 위의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면접은 지원 마감 후 서류 심사 후에 개별 통지합니다. (3)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 마감 기간: 2023년 5월 31일
보낼 곳(우편 주소): (1) 6554 W. Desert Inn Road Las Vegas NV 89146 (2) 이메일: kcalvarylv@gmail.com
문의: (702)296-9193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 담임 목사 조웅철

이제는 전도하다
자신있게 전도하는 보배전도법 -이영희 전도사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와 목사님들이 힘들고 어려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할 때가 되었으므로 디모데 목회훈련원에서 전도집회 및 특강을 준비하고 아래와 같이 초청하오니 많이 참석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간증집회 "이제는 전도하다"
강사: 이영희 전도사, 한울교회 전도사, 여러교회 전도집회 인도 8000명을 전도하신 분
일시: 3월17일(금) 오후 8시, 3월18일(토) 오후 7시
특강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
강사: 이웅걸 목사, 중신대학 및 중신연구원 졸업, PA Eastern College 졸업, 웨스트민스터 졸업(신학 석사, 목회학 박사), 필라델피아장로교회 개척, 35년 사역, 필라델피아장로교회 원로목사
일시: 3월20일(월) 오전10시-오후3시
장소: 나성 한인교회 (신동철 목사 사무)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등록 및 문의: 김만식 목사 714-873-7404 Email: lacpckm@gmail.com
*점심식사 및 기념품 준비를 위해 3월15일 까지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관: 디모데 목회 훈련원
후원: 나성한인교회,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등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서가주노회, 서남노회, 북미주 서노회
디모데목회훈련원 Pastoral Training & Supporting Institute For Church Growth www.ptsmiission.org

신실한 교인, 성실하게 교회.

(1면에서 계속)

4.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은 변명 신학이 아니라 청지기 신학이다.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 올바른 교회는 교인이 현명하게 살고, 자제를 실천하고, 거룩함의 습관을 추구하고, 또 건강을 위협하는 자기 파괴적인 활동을 삼가도록 준비시킨다.

게다가 의미 있는 교제에 참여하는 중년의 경우 스트레스와 사망 위험을 55퍼센트까지 줄일 수 있다. 성실한 교회 출석이야말로 의사들 대다수가 환자와 함께 탐구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과소평가된 자원"이다. 레베카 맥클러 플린이 지적한 것처럼 성실한 교회 출석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5. 교회 출석으로 당신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을 바라는 것은 행복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피조물의 정상 본능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행복을 기뻐하시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롬 12:12)고 명령하신다. 처절한 절망에서 오는 절박한 슬픔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소망을 가질 확실한 이유가 있다.

하버드 연구원들은 매주 교회 출석자 수백만 미국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효과적으로 개선했으며 "십오 년에 걸쳐서 사망률을 20-30퍼센트" 줄였다고 결론지었다. 또 다른 연구는 성실한 교회 출석자 자살과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조기 사망으로 이어지는 절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희망에 넘치는 사람들과 매주 교제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유익하다.

6. 교회 출석은 당신을 더 관대하게 만들 수 있다.

오로지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는 말이다. 우리의 돈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그분 앞에서 청지기 인생에 대한 셈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교회는 교인에게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주라"(딤후 6:18)고 가르친다.

에리카 앤더슨은 이렇게 말한다.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아낌없이 헌금하고도 세속적인 목적에 기부할 가능성이 81퍼센트이다.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목적에도 기부할 가능성이 60퍼센트에 불과하다."

7. 교회 출석은 결혼 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

신앙에 진지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 서약을 지키고, 서로 용서하고, 결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도록 피차 노력하라는 설교를 꾸준히 듣는다고 가정해보자. 성령님이 그 부부를 더 거룩하게 하시지 않겠는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서로에게 더 가깝게 이끄신다.

부부를 갈라놓는 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은데, 성실한 교회 출석은 "이혼 위험을 47퍼센트나 현저하게 줄인다."

8. 교회 출석은 국가 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

1840년에 알렉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은 미국인이 자발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협회를 형성하는" 데 감탄했다. 그는 교회를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재 기관이자 가장 강력한 자발적 연합체로 보았다.

신실한 교회는 교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지역 사회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도록 이끈다. 자기 부인이라는 사람이 가져다주는 누적 효과는 범죄, 이혼, 마약 및 알코올 남

용, 인종 차별, 빈곤, 불의, 재벌, 무지, 굶주림, 노숙자, 소송, 낙태, 아버지 부재, 자연재해의 부정적인 영향 및 기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9. 교회 출석은 망상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딤후 3:15)로서 교회는 속임수에 빠진 세상 속에서 진짜 현실을 붙들고 있다. 문화가 어느 정도 도덕적 반역에 이르면 망상적인 생각의 형태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 사람의 "타락한 마음"(롬 1:28)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이 내어두실 것이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것, 또 남자가 여자일 수 있고, 여자가 남자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역사적, 해부학적, 호르몬적, 유전적, 논리적, 어원학적, 사회학적 현실과 동떨어진 소리이다. 이것이야말로 망상적인 생각이다. 이런 평가가 이상하거나 불쾌하게 들린다면, 그건 우리 세대가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길들여졌기 때문이다. 타락한 미국에서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중재 기관이 있다면 바로 신실한 교회이다.

자녀를 데리고 교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가 도덕 감각을 상실한 세상의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실한 교회 출석은 어렵고 반문화적일 수 있다. 하지만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는 말에 놀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가 주일에도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눅 9:23). 그러나 이익을 생각하는 우리는 종종 비용부터 따지곤 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기쁨으로 이렇게 고백하자.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이라, 듣고서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시 34:3).

없기 때문에 사회적 연결을 만드는 방식과 사회적 연결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 이 "우정과 사회적 연결의 허브" 역할을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 자체도 바뀌놓았다.

추진감은 Z세대는 온라인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편하게 여기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원격 근무 덕에 "(인간 관계의) 허브"를 분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물론 Z세대는 팬데믹의 여파로 고달픈 시간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라진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장 잘 적응할 준비가 된 것도 이들도이다.

적 근무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소에 있는 다른 연구원 2명과 회의를 하는 게 전부였다"며 "누구와도 친밀감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거의 일주일 내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셈이었어요."

자신이 사는 곳에서 새 친구를 찾는 대신 그는 다른 방식을 선택했다. 정기적으로 필라델피아로 가서 기존 친구 네트워크와 어울린 것이다. 원격 근무는 연구실에서 새 친구를 만날 수 없게 했지만, 동시에 원하는 곳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줬다. 덕분에 그는 필라델피아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었다.

키르마이어는 궁극적으로 Z세대가 "직장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들을 통해 사회적 유대감을 느껴본 경험"이

Z세대 새 친구 만들기 너무 힘들다!

(2면에서 계속)

'노 모어 론리 프렌드(No more lonely friends)'라는 전국 단위 모임은 그렇게 시작됐다. 현재 그녀는 누구나 새로운 모임에 참여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해외로도 확장하려 하고 있다.

인터넷이 중요하긴 하지만, 젊은 세대에게도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다. 23세의 프라나브 아이어는 2020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메릴랜드 주 서부의 한 연구소에 취직했다.

하지만 그가 다니는 직장은 완전히 원



시론

지진으로 찢어진 땅, 마음까지 찢지 말자!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지난 2월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덮친 지진으로 현재까지 보고된 사망자 숫자가 50,000명 이상에 이르지만 추가 사망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의 원인은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동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라비아판'과 서부를 구성하고 있는 '아나톨리아판'이 서로 충돌하는 과정 중에 동쪽의 아라비아판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땅이 갈라지는 단층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합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평범한 올리브 농장 가운데로 땅이 갈라지면서 폭 300미터, 깊이 40미터에 이르는 거대한 단층

계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땅이 두 쪽으로 찢어지고 갈라져 외부로 드러난 길이만 해도 무려 470킬로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인간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도 미미합니다. 비록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땅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장처럼 두 쪽으로 갈라져 버릴 경우에는 어떤 건물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일부 몰지각한 신앙인들이 이번 지진참사의 원인이 '구신과 우상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기를 편견 정확하게 영적인 분석을 하였다 생각할진 모르지만, 자신들이 한 그 행동과 표현이 얼마나 큰 교만에 해당되는지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에서 땅대가 무너져 압사당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결과 심판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비난할 때에 그런 자세가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가질 자세는 겸손과 긍휼과 도움의 모습입니다.

목회현장에서 발견되는 안타까운 내용 중의 하나는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동료 신앙인들이 던진 믿음을 가장한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 아파하는 모습입니다. 면전에서 드러내 놓고 '회개와 반성'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거나 혹은 은근슬쩍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상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우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감사하는 것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감사함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고 반대로 상대의 아픔에 더 큰 짐을 지우는 경우가 된다면 좀 더 진중하고 지혜로운 감사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통과 죽음과 아픔이 없는 그런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하는 삶을 넘어 고통과 상처와 눈물과 죽음이 산재한 이 지구촌에 오셔서 온몸으로 고난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며 그 길을 걸으신 주 예수님의 행보가 고통과 아픔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힘과 위리가 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진으로 땅이 찢어져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의 백성들을 보며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마음까지 찢기보다 오히려 찢어진 그들의 마음을 보듬고 치유하는 신앙인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걸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hankschoi@gmail.com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 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 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엔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대에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보냄

구독자 이름 (후원자 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어: _____ 평신도

배달주소: _____

전화: _____

*다른사람에게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 _____

배달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E-mail 구독신청: nychpress@gmail.com / la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 __월 __일 신청인 서명: _____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KCP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E-mail nychpress@gmail.com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첫 눈이 내리면

나이는 들어도 눈이 내리면 즐겁고 기쁘다. 뉴욕에는 지난 몇년 눈 다운 눈을 보지 못하고 지냈다. 금년도 그렇게 지나가나 했는데 이른 새벽 눈을 뜨니 마

법의 설국이 펼쳐져 있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기도하러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경쾌했다. 어둠이 걷히고 사방이 밝아지는 아침 풍경을 놓치기가 싫어서 카메라를 계속 놀리

었다. 우리 부부에게는 첫 눈이 내리면 생생한 추억의 그날을 영영 잊지 못한다. 벌써 1년 모자란 50년 전 12월 초 결혼식 날 아침이었다. 전날까지도 한겨울의 앙상한 뼈들이 노출되어 을씨년스러운 풍경이었는데 밤사이 새하얀 눈이 온천지를 축복으로 감싸고 있었다. 경사날 아침 눈이나 비가 내리면 복 있다는 옛말을 굳게 믿고 싶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신랑과 신부의 한없는 축복을 기대했었다. 부산한 오전을 보내고 우리는 예식장을 향했다. 그동안 멀리 지내던 일가 친척들... 옛 친구들까지 가득한 하객들을 맞이하며 상기된 시간을 보냈다. 모두들 축복의 마음으로 예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례 목사님이 오시지 않았다. 코리언 타임이 통하던 시절이라 그렇게 2,30분이 지

나고 한 시간이 훌쩍 지났다. 하객들은 어느 사이에 자리를 뒀고 양가 가족들과 친구들만이 남아있었다. 황당하고 처량한 신랑은 오지 않는 주례를 기다리며 대로변에 나가 애꿎은 모가지만 길게 뻗고 있었다. 앞이 캄캄했다. 누군가가 교회 담임목사님에게 즉석 주례를 부탁했고, 포켓 성경을 꺼내 들고 신랑 신부는 그렇게 결혼식을 마쳤다. 원래 주례를 맡으신 목사님은 나의 절친의 아버지였고, 고등학교와 청년 시절 때까지 몸담고 있던 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셨다. 그래서 우리 또래 친구들의 주례는 당연히 그 아버지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통례였다. 그런데 나의 인생이 출발하는 첫날에 그 아버지 목사님은 영영 잊지 못할 쓰디쓴 악몽을 선물해 주셨다. 그러나 이 선물이 나에게 오호려 경고가 되었다. 인생의 복과 화

를 갖다준다는 사람들의 징크스는 더 이상 믿지 않기로 했다. 오직 인생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여호와와의 것임을 굳게 해 줬다. 그날 이후 몇 년이 지났다. 어느 수요일에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미국에 거주하시던 그 주례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에 설교하러 오셨다. 잠깐 당황하던 나를 보시던 그 목사님의 첫 말씀은... '임자! 불 면목이 없구먼...'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었습니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말 그 황당했던 주례 부도 사태는 그 후에 내 안에 아무런 부담이 없도록 날 훈련시켰습니다. 결혼식 그날 아침에 리마인드를 위해서 수없이 전화 다이얼을 돌렸지만 계속 통화중이라 포기한 것이 나의 잘못이었지... 또한 주례를 부탁하면서 미리 사례를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었지... 몇 년 동안 내가 부족해서 만들어낸 불상사를 꿈쩍으면서 나름대로 나는 많이 성숙해 갔었다. 세상 살아가는 법을... 인간 체세의 테크닉이 무엇인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람의 도리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복의 열쇠는 주님께 있음을 철저히 깨닫고 믿으면서 나의 세상 인생관은 조금씩 성숙해 왔다고 본다. 반세기 전의 첫 눈과 오늘의 첫 눈은 또 새로운 나를 빚어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중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 1:18)

jkim47@gmail.com

푸/른/초/장

흥귀표 목사

(KAPC 총회장, 시카고다민족교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쟁의 이유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땅을 정복하고 더 많은 땅을 소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계속 싸우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는 다른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은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유함을 통해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가난하셨고, 아무런 정치적 군사적 세력이 없으셨으나, 온유함을 통해 온 세계 만방을 정복하셨습니다.

1.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품성 안에서 형성됩니다. "나는 불완전하고 거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과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습니다. 자신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아셨을 때, 그분은 그 끔찍한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뇌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부분의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그 길을 취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욕구를 추구하면서 오만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온 땅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과 여러분이 원하는 길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동안 고통을 겪을 때, 우리의 거칠고 미성숙하며 죄 많은 본성은 부서지고 온유해지게 됩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적, 육체적 고통으로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일시적입니다.

리서 12: 6-7,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하도록 어떻게 연단 하시니까?

1).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십 년 동안 사막에서 단순하고 가혹한 상황을 통해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원래 그는 활기를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집트에서 누군가를 죽이고 사막에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

만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당신 안에서 역사하여 "온유함"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도록 "땅"을 준비시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신앙과 소망으로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십시오.

2). 하나님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온유해지도록 연단하십니다.

사무엘하 7:14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스트레스와 고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보다도 더 큼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를 오해하거나,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공격하거나, 모함하거나, 거역하거나, 거친 말과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항상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분노를 유발하고 분노로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마귀가 이렇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더 이상 참지 마라. 참으면 지는 것이다. 그들의 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고쳐라."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헬과 육에 대하여 관계가 끊어지고 더 파괴적인 결과에 빠지도록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헬과 육으로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싸움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가 온유해져 그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주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을 온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여러분이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성품 속에 온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함으로 사람들에게서 오는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땅"을 상속받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esfcross@yahoo.com

온유한 자의 복

마태복음 5:5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의 단어 "온유"는 헬라어 단어 "praus"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단어는 적정한 양으로 부드럽게 치료의 효과를 주는 약, 부드러운 산들바람, 또는 잘 길들여 야생성이 부서져 쓸모있게 된 말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너무 강한 약은 치료보다는 해를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사용하면 치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통제 불능의 바람 - 허리케인 또는 토네이도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잘 제어된 바람은 많은 전력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말은 강력한 동물입니다. 그것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야생적이고 길들지 않은 말은 쓸모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말이 잘 길들여져서 온순하게 순종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에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헬라어 단어의 뜻을 종합해보면 온유함은 한마디로 "잘 통제된 힘"(Power under control)을 의미합니다.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이 잘 통제되어 쓸모 있게 된 것입니다. 온유함은 분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잘 통제되어 있는 성품을 뜻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정복하는 통제 된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전투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까?

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굴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유함을 형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온유하게 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1-11).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유혹의 핵심은 예수님이 자신의 뜻과 욕구를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의 욕구를 따르도록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매번 자신의 뜻이나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킴으로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사역에서 있는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42).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을 때 그분은 온유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의 분노는 완전히 통제되었고, 그분을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실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 전서1:23).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따르라고 권면합니다(베드로 전서 2:21-23).

원수, 마귀는 항상 십자가의 길인 하나님의 뜻을 피하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쉬운 길, 넓은 길, 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들고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려야 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위해 "땅"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연단에 순종함으로 온유해집니다.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내에 온유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연단을 받지만, 우리 안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정하신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연단을 받을 때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히브

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사막에서의 삶을 통해 그를 온유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멀리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바다의 격렬한 폭풍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연단하셨습니다. 당신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격렬한 폭풍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하시기 위해 이런 상황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의 삶을 절대 망치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을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실 것임을

몇 달 후면 교회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오직 은혜로 달려온 20년, 영원한 사명, 위대한 교회'로 정했다.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음에 그저 지난 세월 앞에 감사의 무릎을 꿇을 따름이다. 더불어, 시대와 환경을 넘어 사명은 영원하고, 사명을 이루어갈 교회의 위대함을 다시 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표어를 정한 것이다.

오랜 이민 세월의 풍파를 지나온 교회들에 비하면, 20년은 눈 깜짝하고 지나갈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 실제로 오늘날에는 주어진 연령대에서 20년을 빼야 실제 생활의 나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니, 20년 역사는 그저 갓 태어난 아기와 다를 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년 세

결단을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를 결심하게 만드는 자극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영적결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은혜의 결단을 위한 영적 스파크가 먼저 있어야 한다. 변화의 삶을 위한 선한 의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잘 들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듣는 것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사실(fact)이지만, 믿음의 말에 귀를 열어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그만 다 죽고 말았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고난의 풍파중에도 다시 회복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었다. 신앙의 결론은 변화이다. 변화가 무엇인가? 열매를 말한다. 씨가 떨어져,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

정하게 들으며 신앙 생활했던 이들은, 마침내 한결같이 풍성하고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됨을 본다. 주의 교회에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잘 들음에서 영적 리모델링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다.

2. 마음, 결단의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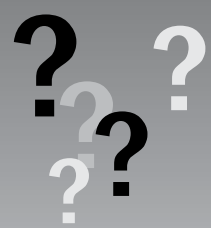
인생 리모델링, 신앙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들려진 말씀의 은혜를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결단의 은혜가 필요하다. '마음'이라는 말은 '생각'이라는 뜻과 함께한다. 삶을 새롭게 하려면,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한다. 구원받기 전의 우리의 생각은 불경건하고 정욕적이며 부도덕했다. 그러나 구원 이후, 우리의 생각과 삶이 새로워졌다. 그러나 생각의 변화들은 한변

양생활이 구체적인 열매를 지향해야 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혹자는 신앙생활이 영적인 것이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실상이 없는 공중에 뜬 그런 이야기에만 열중하는 것을 본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게 마치 귀신을 섬기듯이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10살 아이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표현을 빌리면,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 몸의 헌신을 의미한다.

왜 그렇게도 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 몸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목소리와 재능과 힘, 우리의 시간과 돈,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포함한다. 우리의 몸이 없으면 이런 것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그랜드캐년(Grand canyon)을 가족들과 다녀 왔습니다. 그랜드캐년의 장엄한 협곡과 지층이 콜로라도 강의 침식 작용으로 된 것인가요? 알고 싶습니다.
- 실비치 김 권사

A: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랜드캐년이 콜로라도 강의 수백만 년의 침식작용으로 된 것이라는 진화론자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많은 모순을 가지고 있는 거짓 학설입니다. 창조과학회 이재만 교수에 의하면 그 이론은 1964년 지질학자에 의해 이미 기각된 학설입니다. 수많은 지층과 협곡들 화석들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은 동일 과정(Uniformitarianism)이라는 학설입니다. 즉 지구 표면의 모든 산과 계곡 지층 등은 바람이나 강, 파도 등의 자연력에 의해 무한히 긴 시간을 걸쳐 침식과 퇴적과 운반이 반복된 결과로 생겨난 것이라는 학설입니다. 이 학설은 영국의 허튼과 라이엘이 창안한 학설로 생물학자 다윈이 이 학설에 깊은 영향을 받아 진화론을 수립하였습니다.

한국 창조과학회에서 나온 기원과학이란 책을 읽어보면 그랜드캐년의 지층들은 동일과정설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엄청난 힘에 의해 급속하게 퇴적되었다는 격변론(Catastrophism)적 설명이 훨씬 과학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오징어 화석이 같은 방향으로 누워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P.102)

창조과학자인 이재만 교수에 의하면 그랜드캐년은 창세

“그랜드캐년 노아홍수와 그 후 댐의 붕괴로 형성”

기의 노아 홍수 사건 때에 물이 현재의 그랜드캐년의 꼭대기에서 약 100-200M 이상의 높이로 물이 덮여 흘렀으며 그래서 수많은 지층과 화석들이 생겨났고 홍수 말기에 육지의 용기와 함께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내륙에 거대한 두 개의 호수인 Hope lake(Colorado River)와 Canyon land lake(Glen Canyon)를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댐의 호수의 붕괴로 캐년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랜드캐년 지층의 구조를 보면 지층면이 가지런히 평행을 이루고 있어 오랜 세월의 침식과정이 없이 엄청난 격변에 의해 지층과 지층들이 급속하게 퇴적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랜드캐년에 가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주로 아래부분) 창세기 6장의 노아 홍수로 인해 형성된 땅의 경계(윗부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랜드캐년은 시간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사건 즉 노아홍수와 그 후 댐의 붕괴로 인해 형성된 것입니다. 장엄한 그랜드캐년과 지구상의 수많은 기암절벽들은 노아 홍수로 인한 대격변의 놀라운 기념비(Monument)들로서 과거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으로 보여주는 기념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인생 리모델링, 고쳐 쓰시는 은혜

- 들음, 결단, 헌신 -

월을 뒤로 하고, 사명앞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리모델링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그런 표어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꼭 이런 기념할만한 해를 맞이하지 않더라도, 교회든 인생이든 무엇이든지 날마다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된다. 집도 가만히 두면 이곳 저곳 낡아지고 지저분해질 때, 리모델링을 생각하지 않는가? 마룻바닥도 바꾸고 창틀도 새롭게 단장하고, 페인트도 새롭게 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인생도 가만히 그냥 두면, 낡고 병들고 점점 쓸모없어 지는 것이다. 리모델링, 고쳐 쓰는 은혜가 필요하다.

인생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가장 먼저 신앙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영적으로 새롭게 바뀌고 변화되지 못하면, 별거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 돌아보고 점검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들음의 은혜, 결단의 은혜, 섬김과 헌신의 은혜가 필요할 것이다.

1. 잘 들음의 은혜

새로운 은혜의 출발을 위해서는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결단해야 복이 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고자 할 때도, 가장 먼저 열심히 공부해 봐야겠다는 선한 마음의 결심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마음의 결심과

는 것, 이것이 변화이다. 이처럼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성숙을 맛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져야 한다.

아무리 엄청난 변화도 제대로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의 씨앗이 옥토밭 같은 마음밭에 잘 떨어질 때,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잘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 자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특별히,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건전하고 건강한 들음의 은혜가 영적인 삶을 튼튼하게 결실하게 만든다. 이를 위해 교회에서 주의 종에게 먼저 그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은 세상 천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 그래서 교회 생활이 불분명한 사람들, 자신의 필요를 따라 이곳 저곳에서 동냥정으로 배부리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하게 공급받는 통로가 없다. 그러므로 당연히 삶 속에서 들음의 축복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일

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성화(성화, sanctification)라고 하는 것이다. 성도의 영적 성장 곧 성화의 첫 단계는 생각의 변화이다.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그것도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몸을 드러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의 위대한 점은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착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마음먹으면 어린양처럼 순해질 수 있고, 양 같은 사람이 악한 생각을 하면, 한순간에 늑대같이 돌변할 수 있음은 인간만이 가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다. 양과 사자로 하루에 수십 번씩 돌변한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사자도 일관성이 있으면, 조절할 수 있고 마침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거칠고 험한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은혜로 잘 붙잡아 돌 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결심하고 결단하게 될 때, 마침내 새로운 인생 리모델링, 영혼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것이다.

3. 교회, 헌신의 은혜

인생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신

들이 하나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몸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며, 이것이 참 신앙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세계를 다니고 싶기도 하고, 짧은 인생 가운데 하고 싶은 일도 많다. “육망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한다. 죄가 거머리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쓸데없는 근심, 염려에 매인다. 생각이나 감정이 의지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사단이 노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러 헌신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바쳐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헌신의 구체적인 변화를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헌신을 구체적인 언어로 정의하면, 가장 쉽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헌신은 교회생활과 함께 한다. 교회를 향한 헌신, 교회와 관련하여 삶을 진행하는 것, 교회 가운데 그 삶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후회없는 인생과 삶을 경영하는 길이 된다.

예전에 믿음 좋은 분들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너는 교회에 가서 살아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했

다. 한마디로, 너는 광신자(?)다. 이런 비슷한 표현의 말을 했을 기억한다. 그런데 그렇게 주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섬겼던 그 사람들이 다 망했을까? 그렇게 하다 정말 광신자처럼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 죽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자기 삶보다 늘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을 본다. 한마디로 인생 역전, 인생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끝낸 것을 본다.

무엇을 하더라도 영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잘 되는 데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예배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땅의 삶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대통령을 했는지, 노벨상을 받았는지, 어느 가게에서 점원을 했던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오직 한가지가 중요할 따름이다.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가? 얼마나 온전한 예배자로서 교회를 섬겼는가? 이것이 중요할 뿐이다.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교회와 예배에 온전한 사람 davidnj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웰컴 할머니!!

6년 만에 미국에 오시는 외 할머니를 위해 공항에 갖고 나갈 웰컴 포스터를 만든다고 이른 저녁을 먹은 두 남매가 바쁘다. 화사한 노란색지에 마커로 딸이 한글로 "웰컴 할머니"라 큼지막하게 쓰고...

옆에서 붙이며 오랜만에 만나 외 할머니를 환영하기 위한 준비에 한껏 들떠있다.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엄마께서 계시실 동안 머무르실 게스트룸도 한 번 더 점검한다. 엄마가 오시는 기쁨과 설렘도 크지만, 직접 찾아뵙지 못한 긴 시간 동안 몸과 마음이 팍

이 쇠약해진 엄마 생각에 자꾸 마음이 찢르르하여 누워도 쉽게 잠이 들지 못한다.

남편과 여제 만든 포스터를 손에 들고 신난 아들이 함께 워싱턴 델레스국제공항으로 향한다. 예정 비행 도착시간보다 한 시간 일찍 도착한다는 안내에 아침 일찍 늦지 않게 도착해 차를 주차했다. 국제선 도착지에 가니 평일 오전이지만 우리처럼 사랑하고 보고 싶은 누군가를, 인생에 중요한 만남이 될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세계 각국에서 출발하여 한 곳의 도착지 워싱턴DC로 온다

는 걸 나를 포함한 철문 밖에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한 명씩 사람들이 나오며 문이 양쪽으로 열릴 때마다 내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오는 건 아닌지,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서길 반복하고 펜스 앞쪽으로 다가가 흑시 문 안쪽에 거의 다 와 있는 게 보이진 않을까 하여 까치발을 들고 고개를 빼어들며 살핀다. 그리고 기다리던 그리운 그 사람이 나오면 누구 하나 가만히 서서 기다리지 않고 내가 여기 널 마중 나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며 손을 들어 이름을 부르고 만나지 못한 시간의 그리움을 담아 달려가 서로 포옹하고, 얼굴을 쓰다듬으며 손을 잡으며 웃음꽃이 핀다.

그렇게 함께 기다리며 문득,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너무나 보고 싶

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중 나와 함께 기뻐하고, 다시 만날 수 있음을 감사하고, 함께 안고 서로 눈물을 닦아 주며 행복해하는 모습 말이다.

아들은 할머니는 왜 안 나오시냐?며 슬슬 지루해하는데, 문이 열리며 마침내 엄마가 긴 비행에 피곤하고 초췌해지신 모습을 나오신다. 외할머니를 알아본 손주가 먼저 "할머니!"하고 달려가 할머니 품으로 덥석 안기고, 나도 "엄마!"하며 달려가 나보다 한참 작고 약해진 엄마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잡는다. 남편이 엄마께 인사하며 케리어를 넘겨받아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짧은 근황을 나눈 후 차에 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올린다. 뒷자리에서 할머니께 여제 만든 포스터를 보여드리며, 재잘거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흥겨움에 가득 차 있다. 나도 다행히 화상통화로 만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엄마의 모습에 감사와

안도를 느낀다. 엄마는 사역지를 옮긴 후 처음 온 사택 소파에 앉아 한참 동안 기도하시며 눈물을 닦으신다.

멀치육수를 낸 시원한 김치콩나물국과 불고기를 점심으로 준비하며 재빨리 이번이 엄마가 미국 막내딸 집에 오시는 마지막 여정이 아니시길 소망하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고 따뜻한 식사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에서 우리 모두를 두 팔 벌려 웰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나아가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장 3절)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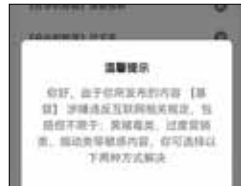
Internet News

'인구% 기독교' 베트남서 4만 모인 첫 '전도 집회'

공산주의 국가이자 기독교 불모지인 베트남에서 4만명 규모의 기독교 전도 집회가 열렸다. 베트남 정부가 성탄절 등 종교적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종교 집회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빌리그레이엄 전도협회(BGEA·회장 프랭클린 그레이엄)는 4~5일 이틀간 베트남 호치민시의 푸토 스타디움에서 '스프링 러브 페스티벌(Spring Love Festival)'을 개최했다. 집회에는 베트남 시민 4만2000여명이 참여했다. BGEA측은 이날 4300여명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했다. 다른 지역에서 이번 집회에 참석했다는 한 시민은 BGEA에 "축제 오는 데까지 3시간이 걸렸다"며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집회"라고 감격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중국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는 최근 '2022년 연례 박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당국이 전례 없는 온라인 검열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카카오톡 메신저와 비슷한 '위챗'의 그룹 채팅방에서는 '예수' '구세주' '아멘' '찬양' '중보기도' 등의 기독교 단어가 포함된 글의 접근이 제한(사진)되거나 금지된 상태다. 지난해 부활절 전날에는 광둥성 선전시의 한 교회 그룹 채팅방에 세례 영상이 올라온 지 30분 만에 발각된 일도 있었다. 20년 넘게 운영된 기독교 사이트 '요나홀'이 지난 5월 이유 없이 사라졌으며 상하이시의 한 교회는 불법 단체로 분류돼 교회 홈페이지와 SNS가 전부 폐쇄당했다.



사회인이 되기 직전의 학생에게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으려는 시도도 확인됐다. 지난 5월 중국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설문 조사가 단행됐다고 한다. 설문지에는 '종교와 범죄의 연관성' 등 부정적인 제목이 달렸다. 또 '학교 내 종교활동 금지'가 골자인 교육부 규정을 근거로 7가지 금지 사항을 상세히 적시하고 학생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교사와 학생이 종교활동에 참여하거나 조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종교 의복이나 상징물 착용은 엄격히 금지된다' 등의 내용이다.

가정교회 탄압도 두드러졌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가 불법 집회 조직, 테러리즘이나 극단주의 물품 소지 등의 새로운 혐의로 구금되거나 구속됐다. 차이나에이드는 "종교활동 외의 혐의로 가정교회 신자와 목회자를 박해하고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 '이민자 혐오' 튀니지에 지원 프로그램 중단

카이시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의 인종차별적인 반 이민자 발언 이후 세계은행(WB)이 튀니지에 대한 향후 지원 프로그램 마련 작업을 중단했



다. 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튀니지와외의 향후 협력을 중단한다고 전날 직원들에게 공지했다. 맬패스 총재는 구체적으로 오는 2023~2025년 튀니지에 대한 '국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오는 21일 새로운 전략적 계약을 검토하는 이사회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세계은행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별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는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빈곤 탈출과 성장을 돕기 위해 운용 중인 핵심 수단 중 하나다. 세계은행은 튀니지 정부가 국가 재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모색함에 있어 튀니지의 식품 수입 및 사업 개발 자금을 지원해 왔다.

맬패스 총재는 내부 공지문에서 "이민자와 소수자의 안전과 포용은 '모든 형태의 포용, 존중, 반인종주의'라는 우리 기관의 핵심 가치의 일부"라면서 "차별, 공격성, 인종차별적 폭력을 조장하는 공개적인 발언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맬패스 총재는 세계은행이 추가 보안 조치를 포함해 튀니지, 특히 아프리카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 사회의 비판이 확산하자 사이에드 대통령은 인권과 자유를 중시한다는 내용의 영상을 공개하고, 튀니지 외교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화재로 무너졌던 노트르담 대성당... 내년 말 다시 문 연다

2019년 4월 화재로 점타와 일부 지붕이 무너져내린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이 내년 말 다시 돌아온다. 다만 일부 보수 작업은 이듬해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노트르담 대성당 재건자문위원장 장 루이 조르졸랭 예비역 육군 대장은 대성당이 내년 12월에 다시 문을 열 것이라고 AP통신에 6일(현지시각) 말했다. 대성당 화재 이후 '5년 안에 건물 복원'을 공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계획에 맞춘 일정이다.



조르졸랭 재건자문위원장에 따르면 내년 12월 대성당 재개장과 함께 파리고구장인 대주교가 대성당에서 다시 미사를 집전할 수 있게 되고, 파리를 찾은 관광객들도 대성당에 방문할 수 있다. 프랑스 고딕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은 2019년 4월 15일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지붕과 점타 등이 일부 소실

됐다. 프랑스 당국은 원형 복원 계획에 12세기에 완공된 원형을 목표로 프랑스 건축가 외젠 비올레레뒤크가 19세기에 더한 96m 높이의 첨탑을 다시 세우는 것까지 포함했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의 재건 작업은 지난해에 시작했다. 화재로 점타와 지붕골조에서 녹아내린 약 400t의 납이 주변 지역을 오염시킨다는 우려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재건 작업이 지연됐다. 다만 리마 알틀라 문화부 프랑스 장관은 AP통신에 내년 말까지 모든 보수가 끝나는 게 아니며, 2025년에도 일부 보수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163년 프랑스 루이 7세의 지시로 건설을 시작해 1345년 완공됐다. 프랑스 가톨릭 문화유산의 최고봉으로, 199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의사가 놓친 유방암, 시가 찾았다... 헝가리는 실험 중

의사가 찾아내지 못하는 유방암을 발견하는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실험이 헝가리에서 최근 활발히 이뤄지는 가운데, AI가 인간의 의료 업무를 대체할 수 있을지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헝가리가 환자의 유방암을 진단하는 AI 소프트웨어 임상 진료의 주요 시험장이 되고 있다고 5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맘마클리니카 병원 5곳은 AI 유방암 진단 소프트웨어를 2021년부터 도입해 연간 3만5000건 이상 검진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병원의 AI 소프트웨어는 2021년 이후 방사선 전문의가 놓친 약 22건을 찾아냈다. 암 가능성이 있는 약 40건도 검토가 이뤄지는 중이다.



유방암 추적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케이론 메디컬 테크놀로지스가 개발한 것이다. 케이론은 헝가리와 아르헨티나의 병원, 미국 예모리 대학 등이 제공한 유방암 환자 500만명 이상의 유방 X선 사진으로 유방암 진단 AI를 교육했으며, 이 과정에 12명의 방사선 전문의가 참여했다. 케이론은 지난해 27만5000건 이상의 유방암 진단을 수행한 실험에서 AI가 유방조영술 사진을 이중 관독한 결과가 방사선 전문의가 이중 관독한 결과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또 방사선 전문의의 업무량이 30% 이상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헝가리 병원에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AI가 암 발견율을 13%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명문대 입학할..

(1면에서 계속)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예측성 배아 검사(predictive embryo tests)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작년, 유럽 인간유전학회(European Society for Human Genetics)는 "검증되지 않은, 비윤리적인 관행"이라고 불렀고, 기술의 사용을 통제하는 정책이 개발될 때까지 이를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검사의 문제점은 그것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신생아의 건강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것이다. Meyer는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기업들의 광고를 면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Meyer와 유전학자 Patrick Turley, 경제학자 Daniel J. Benjamin을 포함한 공동 저자들에 따르면, 만약 배아 검사가 효과가 있다면 그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배아 검사가 사회의 "기존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기술이 특정 사회·경제적 집단의 사람들만 배아를 더 건강하고, 더 키가 크거나, 더 똑똑한 자녀를 낳기 위해 사용된다면 말이다. Meyer는 "예측가능한 미래,

어쩌면 이 기술은 이미 부유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만 이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고 힘으로 작용하는 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접근할 수 없다. 부가 상속되듯, 이것도 말 그대로 상속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세대에 걸쳐 발전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악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 가톨릭생명윤리센터 John F. Brehany 부사장은 2월 14일 CNA와의 인터뷰에서 유전자 검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배아를 죽이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심각하게 비윤리적이라

고 말했다. 그는 "배아의 유전자 검사는 우생학을 건전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 발생한 보통 이하의 영아 유기와 원칙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전자 검사"가 페트리 접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도 냉담한 판단에 대한 행동이나, 거부당한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행의 야만성이 인정받지 못한다." 배아의 체외수정 임신 유전자 검사는 단일 유전자 형질 또는 헌팅턴병, 낭포성 섬유증, 일부 유전성 암과 같은 질병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 형질은 여러 유전자와 복잡한 상호작용에 기인한다. 과학

자들은 다중 유전자의 "다유전성"검사가 키나 지능과 같은 특성뿐 아니라, 암, 심장 질환 또는 정신분열증의 위험을 감지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논쟁하고 있다. Bloomberg Businessweek는 2022년 5월 일부 유전자 검사 업체들이 체외수정 배아에서 다(중)유전자위험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아직 지능과 같은 비(非)건강 특성을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는 업체는 없다. 물론, Brehany의 견해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질병을 예측하거나 혹은 비(非)건강 특성을 검사하는 것)의 윤리적 차이는 미미하다. 그는 "이 둘의 공통적인 것은 우생학적 사고방식

과 임신을 위한 선택된 배아 단계의 인간을 버리는 것을 포함한 몇 가지 핵심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페트리 접시에서 배아를 선택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생식의학협회 대변인 Sean Tipton은 체외수정을 수행하는 자들은 여전히 검사의 가치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환자는 이 분야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하며, 매우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과학 분야의 일부인 이 검사를 진행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유전 상담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65. 고덕화 (1881-1979)

고덕화(高德化)는 1881년 10월 20일에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른바 지식인이었다. 결혼한 후 서울에서 거주하였는데, 하와이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꿈꾸며 노동 이민을 신청한 그는 1903년 4월에 인천에 있던 대한제국 원민원에서 여권을 받았다. 여권은 한문과 영어로 되어 있었고, 신청인은 하와이 이민 회사 측으로 보이는 강원석이었고, 발행인은 대한제국 원민원 총재 민랑환이었다. 부인은 한국에 두고 23세의 나이에 단신으로 45달러를 소지하고 님븐 기선을 타고 고덕화는 1903년 4월 말에 신천신지의 하와이 호놀룰루에 입항했다.

1910년부터 사진 신부가 하와이로 이동하여 1924년까지 약 800명이 하와이에 이주하였다. 오후수업에서 1911년에서 1929년까지 결혼한 명부에 따르면 고덕화는 사진 신부였던 김공도와 1913년 2월에 호놀룰루에서 결혼하였다. 신부는 고덕화보다 14살이 적었는데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식 부인이었다. 고덕화는 하와이섬의 북쪽에 위치한 호놀가이지에 있는 농장에서 노동하면서 아내와 함께 이곳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있었다. 그리고 하와이 선교연회에 속한 한인 목사로 여럿 있었다. 장로 목사 곧 정회원으로 홍치범은 10년을 사역하였고, 김이제는 9년을 사역하였으며, 몇 년 사역한 지 알수 없지만, 흥한식이 있었다. 집사 목사 곧 정회원으로 임준호, 조연택, 이선일은 준회원 과정을 완전히 마쳤고, 이관목, 박세환, 김재성은 4년차 과정에 있었다. 연수 과정에 있었던 한인으로는 2년차 연수에 있었던 차윤중과 1년차 연수에 있었던 한명교, 한YC, 박중수 그리고 박기홍이 있었다.

그해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호놀룰루 제일감리교회에서 미국 북감리교 하와이 선교연회가 개최되었다. 이 연회에서 고덕화는 아내와 함께 출석하던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하와이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다. 이 선교연회에서 호놀가이지와 국구해리 지역 순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박세환 목사와 호놀가이지 지방 전도사로 파송을 받은 황인W와 그리고 고덕화와 함께 호놀가이지 권사로 파송을 받은 변성운과 함께 고덕화는 동역했다.

고덕화가 권사로 파송을 받은 그해 2월에 보고된 통계에 따르면 이들 두 교회에서 1년 동안 11명이 성인 세례를 받았고, 6명이 어린이 세례를 받았으며, 어린이 세례를 받고 입교한 사람이 28명이었으며, 등록된 학생 교인은 45명이었으며, 주일학교가 네 곳에 있었는데 교직원 21명이 62명의 학생을 가르쳤고, 엠넷 청년회 고등부에 30명이 등록하였으며, 예배당이 한 곳에 있었는데 당시 시세가 650달러였고, 예배당 건물 유지와 수리를 위해 235달러를 지급했으며, 연료와 전기 등에 45달러를 지급했다. 그런데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와 국구해리 한인감리교회의 통계

이므로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의 통계를 따로 확인할 수 없고, 예배당이 호놀가이지 한인감리교회의 것인지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고덕화가 권사로 파송되기 1년 전 곧 1915년 하와이 선교연회록과 그가 권사로 파송 받은 1년 후 곧 1917년 하와이 선교 연회록을 찾을 수 없어 그가 1915년에 권사로 파송을 받았는지와 1917년에도 권사로 파송을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그가 1년간 권사로 사역한 후의 통계도 찾을 수 없어 안타깝다.

재미한족 연합위원회

와이아키아 밀 회사에서 노동하던 고덕화는 1918년 10월에 세계 제1차 대전 징집 서류를 작성했다. 위의 징집 서류에 따르면 그는 키가 컸으나 체구는 중간형이었다. 징집 서류를 작성한 지 2년 후 그는 인구조사에 응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그는 농장에서 퇴직하여 하와이섬 하마크나 지역에서 양복점을 경영하였고, 그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1914년에 태어난 장남 영이와 1918년경에 태어난 차남 영호에 이어 1922년경에 삼남 영석을 낳았으며, 1923년경에 사남이자 막내 영현을 낳았다.

1922년 8월에 호놀룰루 주재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포화에 있어서 조선인의 현 상태에 관한 보고의 건에 따르면 고덕화는 자본금 5,000달러로 호놀룰루에서 양복제조업에 종사했는데 이듬해 7월에 위의 일본 영사관이 작성한 '미령 포화에 재류하는 조선인 실황'에 따르면 그해 그는 호놀룰루에서 10,000달러의 자본금으로 양복점을 경영하고 있었다. 1년 사이에 자본금이 5,000달러가 많아졌다는 보고인데 사실상 그 수치를 믿을 만하지 않더라도 그가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한다.

1929년 11월 14일에 발간된 신한민보에는 고덕화가 신한민보를 위하여 10달러를 보조하였다고 보도했다. 국제적인 경제공황 사태에서 그의 나라 사랑과 민족 사랑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1932년 2월에 신한민보가 게재한 월동 소식에 따르면 만주 사변 이후 오지에 재류하던 한국 농민의 대부분은 생명에 대한 위험은 물론 지방 치안이 문란한 관계로 안전지대를 찾아 흩어진 수가 이미 수만에 달하였으며, 구사일생으로 원지에 남아 있는 농민도 경작기를 앞두고 속수무책으로 궁지에 빠져 있어 춘경기의 작농 문제를 최대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사변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은 봉천성과 길림성에 이주한 한인 농민 중 적어도 그해 경작기에 구제

받지 못하면 작농치 못할 호수가 49현에 13,430호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적어도 매호 150원의 농업 구제금이 필요하여 총 200만 원의 금액이 필요했다. 이에 원동사변 임시위원회가 조직되었고, 신한민보는 원동 사변 청원을 수시로 광고했다.

그해 7월에 신한민보는 하와이에서 발행되던 국민보의 주필 사면과 후임자에 대한 보도를 냈다. 국민보의 주필 김현규에게 보수금을 재정 곤란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여 국민보의 편집 사무는 교민 총단장인 차신호가 겸임하여 국민보를 계속 발행하기로 하였다. 이렇듯 국제적인 경제공황의 여진이 남아있던 터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덕화는 원동 사변 임시위원회에 15달러를 기부하였다. 그 외에도 최응호, 이옥형, 이해주, 김윤호, 박원경, 방사겸이 기부하였고, 중국인까지 기부하였는데, 료달삼 등 2명도 기부하여 총 53달러 45센트나 모였다.

유동식이 지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85년사인 하와이의 한인교회에서 고덕화의 이름을 찾을 수 있다.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의 전신인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를 사무하던 입두와 목사는 하와이의 동역 목회자들과 유대를 가지기 위하여 자주 자리를 같이하여 친교 모임을 열었고, 그 응응이 좋았다고 한다. 1937년 2월에도 그가 목회하던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하여 목회자들을 초대하였는데 고덕화가 있었다. 함께 초대받은 목회자는 마우이섬에서 사역하던 임준호, 홍한식, 가와이섬에서 사역하던 현 순, 와와이와 와이파후에서 사역하던 안창호, 라나이에서 사역하던 이관목, 호놀룰루 제일한인교회의 본처 목사 박중수, 힐로와 하카라우에서 사역하던 정의조 그리고 최응기도 있었다. 그런데 위의 책은 고덕화가 사역하던 교회를 밝히지 않았다.

이듬해인 1938년의 8월에 발간된 태평양주보에 고덕화가 재봉사업을 하였는데 태종씨에게 방매했다는 기록이 있다. 2년 후인 1940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에서는 그는 파호아 애비뉴 길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건물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

고덕화의 아들 영호가 아이오라니 학교에 다녔는데 23세가 되던 1940년 10월에 세계 제2차 대전 징집 서류를 작성하였다. 아들 영호가 징집 서류를 작성한 이듬해 12월 7일에 일본 군부가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



고덕화 여권 (The Koreans in Hawaii)



호놀룰루 제일한인감리교회

하였다. 이는 역사상 최장 거리의 기습작전이었는 데 전술적으로 보면 일본 제국이 완벽하게 승리했으나 전략적으로 볼 때 그동안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아들 영호가 전쟁터로 나가게 되었다. 1944년 2월 말까지 입대한 군인 중에 호놀룰루 한인감리교회 교인들만도 56명이나 되었다. 영호도 56명 중 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1941년 4월에 8일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 등 9개 단체가 모여 해외한족대회를 개최하고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결성했는데, 1944년에 재미한족 연합위원회를 상설기관으로 인정하고 각 단체 대표원이 모두 위의 연합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가결하여 연합위원회 회원을 개설했다. 고덕화는 유동면과 승용환과 함께 군사부에 선 임되었다. 이들 외에 개설했던 임원은 위원장에 박상하, 부위원장에 안원규, 비서부에 기록서기, 통신서기, 영문서기를 두기로 하고 기록서기에 정두옥, 통신서기에 김현규, 영문서기에 조제인, 선전부 위원에 현 순, 유진석, 박근우, 재무부에 독립금 재무와 군사금 재무를 두고, 독립금 재무에 강창진과 김공도, 군사금 재무에 차윤중과 최두옥, 감사부에 송승균, 차신호, 권혜경 그리고 교재부에 오창익, 박보광, 이봉수, 강상호 그리고 심영신이었다.

1950년에도 고덕화는 호놀룰루에서 건물 임대업으로 생계를 이었고, 아들 영현은 해군 공장에서 기술공으로 재직하였다. 고덕화는 1979년 9월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향년 98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대학생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813-4499, www.lbcgoc.com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C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시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절로미예배: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정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co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 210-6890 2333 Figueroa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Tel: (213) 381-2202, www.mpccls.org 170 Birmin Pl., Los Angeles, CA 90004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9:15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오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금요일예배: 오전 1:30(수-영),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iblehca.org / www.bhc.org 18700 Hanover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 225-7691 824 W. Valencia Blvd., LA, CA 90015	세계선교회 담임목사: 김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 M 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213) 388-1827 / www.wmccs.com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9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실비치 사랑교회 (Sea Beach Se-Fang Church)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6:30 Tel: (310) 749-4756 실비치 리저널드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수)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순홍 목사 (LA복음연맹관리교회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www.elpisfamily.org, Tel: (562) 894-6214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성령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수-영), 8:00(토) 은혜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온론 Tel: (714) 446-6202, www.graecm.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479-4500, www.go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부)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ancecc.org 196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어장경이 읽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76)



리차드 백스터(Richard Baxter)의 [회심, A Call to the Unconverted]

이윤석 목사 (NY 부르크린제일교회)



3장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주어지는 죽음(5)

* 교리 1의 적용: 악인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법이다.

(5) 자신이 회심했는지를 진지하게 점검해 보라!

친구들이여! 이제 여러분이 마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행동하며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을 부탁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여러분을 속일 수 있다. 그러나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속이지 않는다. 진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이렇게 자문해 보라!

① 이것은 사실인가? 나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가?

② 나는 회심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멸망당하는가?

③ 지금이 바로 너무 늦기 전에 내가 나를 살펴야 할 때이나 왜 나는 지금까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가?

④ 왜 나는 이토록 중요한 관심사를 부모에게도 뒤로 미루거나 대충대충 넘겨버렸단 말인가?

⑤ 나는 깨어났는가? 아니면 제 정신인가?

⑥ 오! 복되신 하나님! 내가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기 이전에 내 생명을 데려가지 않았던 것은 얼마나 큰 주의 자비입니까?

⑦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무시하는 것을 금하신다.

⑧ 내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나는 회심한 상태인가? 아니면 아직 회심하지 않은 상태인가?

⑨ 일찍이 회심의 변화와 역사가 내 영혼에 있었던가?

⑩ 나는 죄의 악독함, 구세주의 필요성, 그리스도의 사

랑, 또한 하나님과 영광의 탁월함을 보기 위해서 말씀과 주의 성령에 의해 빛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

⑪ 나는 내 영혼에 용서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내 구세주인 주님을 기쁘게 영접한 적이 있는가?

⑫ 나는 이전의 죄악된 삶과 내 안에 남아 있는 모든 죄의 뿌리를 미워하는가?

⑬ 나는 나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를 피하듯이 이 죄를 피하고 있는가?

⑭ 나는 하나님께 대한 기록과 순종의 삶에 나 자신을 드리고 있는가? 이러한 삶을 사랑하거나 기뻐하고 있는가?

⑮ 나는 세상과 탐욕적인 자아에 대해서 죽었으며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영광을 위해 산다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가?

⑯ 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소망하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가?

⑰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장 존귀하시며 높으신 분이신가?

⑱ 분명히 이전에 나는 일차적으로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았다. 세상과 육신을 즐기다가 남는 찌꺼기로 마음에도 없이 하나님을 섬겼다. 내 마음은 이제 다른 길로 돌아섰는가?

⑳ 나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㉑ 내 소망과 마음을 하늘에 두고 있는가?

㉒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활의 범위요, 목표이요, 경향인가?

㉓ 심각한 모든 죄와 싸우고 있으며, 기꺼이 내 모든 약점들을 제거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이것이 회심한 영혼의 상태이다. 그러므로 나는

반드시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반드시 망한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참으로 나와 함께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아닌한가?

㉔ 무서운 재판관이 이 문제를 심판하기 전에 이러한 의심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㉕ 나는 내 마음과 생활 속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생소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회심했는지, 회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소간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㉖ 만일 내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을 거짓 생각과 소망으로 살살 달래는 것은 내게 전혀 이익이 안 될 것이다.

㉗ 이럴 때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참으로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심하라.

㉘ 만일 내가 회심했다면 나는 기뻐하며 은혜로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면류관을 쓸 때까지 안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㉙ 만일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내가 은혜의 길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나는 돌아서야만 하며 그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

㉚ 그러나 만일 내 마음이 어둠과 완고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죽을 때까지 내가 지체한다면 그때는 너무 늦다. 그때는 회개하고 회심할 시간이 없다.

㉛ 나는 반드시 지금 회심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6) 회심의 확인 여부를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삼으라!

여러분이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은 이 문제를 중요한 과업으로 삼고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것을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찾아가라. 그들이 신실하고 경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도움을 구하라. 이 문제는 중대한 것이다.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의 치료를 위해 조언해 주는 것처럼,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조언해 줄 것이다. 이런 조언은 자기들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 있지도 않으면서 스스로 자기는 구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실제로는 회심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수천의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이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만일 지옥으로 가는 길에 있고 멸망의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단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해도 그들은 감히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탐색하고 여러분의 상태를 알게 되기까지 쉬지 말라. 만일 여러분이 회심한 상태에 있다면 이 사실을 기뻐하며 계속 나아가라! 만일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처럼 지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라! 마음이 변하기 전에 결심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될 영혼들을 위해 여러분이 내 양부를 거절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영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의 관심사로 삼으라. 여러분이 회심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알아서 여러분의 영혼을 불확실한 근거 위에 세우는 모험을 하지 말라.

(다음 호에는 4장 악인이 회심하여 사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다)

younsuklee@hotmail.com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한부모 모임 대표)

한부모(싱글)모임 인도자를 위하여(15) 동사무소 사역?

사역을 섬기다 보면 아무래도 숫자에 연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외부로 나가 수양회를 계획할 때면 남모르는 수고가 적지 않은 만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낙담하곤 합니다. 지난 12월 모임엔 직장 다니는 분들의 연말모임으로 예상인원의 사본의 일 정도가 빠진 편이 되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특별히 연말인 만큼 선물이며 음식 메뉴며 미술 공작에 대한 준비를 오랫동안 했을뿐더러 보통 때보다 더 큰 장소를 빌렸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식으로 기도도 아랄 때 떠오른 응답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였고 바로 그날 한국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동사무소 목회'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오늘은 몇 명이 예배에 참석했고 새신자가 몇 명이고 등의 숫자에 매달 수 있지만 이를 초월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2월 수양회는, 하나님 은혜로 다음날 도착한 사람, 당일에서 와서 그날로 떠나야 했던 사람들을 포함해 그럭저럭 예상인원에 미치게 되긴 했지만 계속해서 '동사무소 사역'을 혼자 중얼거리면서 무엇이 잘못이었나를 되짚게 되었습니다. 우선 날짜 선정에 있어 생각이 짧았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12월 첫 주말에 치렀던 다른 해와는 달리 이번에는 성탄절 이브를 한 주 앞둔 주말인 만큼 성탄절 분위기도 무르익고 자녀들이 2주 방학에 들어가는 날이라 더 많은 참석이 있을 거라고 잘못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성경구절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눅10:41-42)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유쾌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과 말씀을 나누는 것, 어느 것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옳은 건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지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피 값주고 사신 한 영혼, 영혼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은 늘 들어왔고 머리로는 늘 생각해 왔었지만, 가슴에 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역을 치르고 난 후 지난달 정기모임을 앞두고, 어느 분의 뜻 오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의 동요가 없게 된 것을 느끼며 홀로 미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왕에 말씀 준비하고 신경써서 사 처리는 만큼 올 만한 분들이 다 오면 좋겠지만 그리 아니더라도 참석한 분들과 '요사이 어떻게 지내는가?', '하나님과의 개인적 체험이 있는가?' 등의 일대일 대화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 마음이 들면서 숫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부모 인도자들께서 숫자의 묶임에서 벗어나 사역의 기쁨과 참 자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hyojungyoo2@yahoo.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in NY, NJ, and Hawaii with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유리꼬에게서 배운 것

일본에 오자마자 후사라는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미야모토 유리꼬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자인 오자카 후사는 일본에서 대학교수로 미

술 계통에선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 곳에서 강연한 것을 모은 것을 책으로 편찬했습니다. "유리꼬에게서 배운 것"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오자카는 시골서 손두부를 만들어 팔아 사는 가난한 집 학생입니다. 그래서 겨우 소학교를 졸업하고 동경에 나와서 미술학교에 합

격했는데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곳이 유리꼬의 가정에서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하루 3시간씩 일해주고 낮엔 학교를 다녔습니다. 유리꼬는 대중문학가로 일본에서 알아주는 귀부인입니다. 한번은 집 주인 유리꼬의 생일날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상류사회에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유리꼬가 오자카에게 좋은 기회이니 같이 참석하자고 했습니다. 주인 마님의 생일에 참석한다면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자카는 너무 가난하게 자라 1년에 계란 후라이를 한 두번 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계란후라이를 반숙 해서 먹다보면 터져서 노른자가 접시에 묻게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그 접시를 들고 깨끗이 훑아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유리꼬의 생일잔치에 음식이

나오는데 계란후라이 반숙이 나왔습니다. 먹다보니 터져서 접시에 흘렸습니다. 귀한 것이니 깨끗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잔치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디서 배우지 못한 교양없는 자가 참석했는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자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유리꼬가 갑자기 자기도 접시를 들더니 접시를 훑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오자카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엄청난 실수를 했을 때 말로 변호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나와 같이 할 아먹음으로써 궁지에서 건져주고 그 큰 실수를 덮어 주는 사람이 어디 또 있을까? 오자카는 그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유리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자카는 유리꼬에게서 배웠다는 것임

니다. 유리꼬에게서 예수를 배웠고 참사랑을 배웠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훗날 오자카는 일본의 유명한 미술대학 교수가 되어 가는 곳마다 강연을 할 때 "나는 유리꼬에게서 예수를 배웠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펴낸 책 이름이 "미야모토 유리꼬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를 닮은 삶이요.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운 삶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요일 3:18) 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사랑의 말 한마디, 따뜻한 격려의 미소로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songkpak@hotmail.com

신앙 에세이



류응렬 목사 (아시아중앙장로교회)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얼굴을 뵈 지가 10년, 목소리를 들은 지도 10년이 더 된 교수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시를 공부했던 대학원 시절의 제 지도교수님입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수님과 함께 벚꽃 향기 흐르는 동산에 앉았습니다. 마침 손 던과 조지 허버트 같은 신앙시를 공부했던 시기라 그들의 시 세계에 대해 몇 말씀 나누 후에 교수님은 자신이 최근에 신앙을 가지게 되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늘 이성적이고 이지적으로 보이신 교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말씀에 저는 땅 위의 순례자의 삶에 든든한 후원자를 만난 듯한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

수님은 그동안 성경공부를 인도하면서 많은 젊은이를 주님께로 인도하셨고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곤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할 때 장학금을 준비해 건네주시면서 누구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최근에 고등학교 동창생들 신우회 카톡방에서 누군가 들어보라고 올린 설교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였던 제 설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오면 신우회 모임에 당장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부탁을 하시기에 당연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전화 중에 미안해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

사님이 얼마나 바쁜 분인지 잘 아는데 너무 성급하게 부탁해서 미안해요. 목사님, 중요한 일 잘 보시고 이전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에 모든 부탁 다 맡지 마시고 시간과 건강 관리를 잘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처럼 따스하게 들려오는 교수님의 한마디에 나 자신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묵직한 책임을 심어주었습니다.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쓴 시 가운데 읽을수록 가슴에 다가오는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브레히트는 독일 바이에른 지방에서 태어나 의학을 공부했지만, 훗날 글로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시인입니다.

다. 처음에는 편지로 쓴 글을 나중에 시처럼 배열한 것이라 하지만 어느 시보다 우리 가슴 깊이 내려앉은 글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빔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란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단다. 나는 네가 필요하단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정신을 차리고 말하고 행동해야겠습니다. 겨울 앞에 비친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 때문에 늘 아파할 지라도, 나 자신이라는 존재가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자신을 좀 더 소중히 여겨야겠습니다. 이 사실을 아침저녁에 가슴에 새기면 삶은 좀 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는 더욱 품위 있게 살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preachchrist@kcpc.org

기아대책...신속한 구호활동과 투명성, 효율성 높아

볼티모어새소망교회가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성금을 지난 주일(3월5일)에 KAFHI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새소망교회는 미주기아대책 설립 때 부터 21년을 동역한 교회이다. 인도네시아 반다체 쓰나미, 아이티 대지진, 동일본 대지진, 쓰촨성, 로힝야 난민, 동아프리카 대기근 등 모든 긴급구호를 위해 앞장서 도움을 손길을 내밀었다. 안목사는, "긴급구호는 강도만난자를 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신속히 난민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이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해지는 선교적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게 성도와 교회가 할 일입니다. 20년간 지켜본 미주기아대책은 긴급구호 활동에 신속합니다. 투명성과 효율성도 상호행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사역을 합니다. 다른 구호개발단체와는 큰 차이지요. 그

래서 늘 신뢰하고 함께합니다."라며 기아대책으로 후원금을 보내는 이유를 말했다. 미주기아대책 정승호 사무총장은 "새소망교회의 헌신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소망교회의 사랑이 정말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었다"고 전했다. 미주기아대책팀은 3월말경에 구호활동 모니터와 긴급구호 이후 계획을 위해 단기미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현장은 아직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긴급구호금 체크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Zelle, kafhi@fh.org, Chase Bank 를 통해 직접 도울 수 있다. 자세한 것은 (703)473-4696, 이메일 shchung@fh.org 문의하면된다. (박준호 기자)

12 MARCH DAYLIGHT SAVING TIME 2023 알 림 3/12(주일)에 시작됩니다. 오전 2:00를 3:00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8 columns listing various churches: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센터빌한인장로교회(PCA), 일간사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장로교회, 장로임직예배(NY)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임직예배가 주일 오후 5시 뉴욕장로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임직자는 김준엽, 홍성로, 방용복, 박상우, 김선신 피택자로.

▲문의: 뉴욕장로교회 718-706-0100

퀸즈한인교회, 목회자 사모 세미나(NY)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는 3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2층 바울관에서 목회자 및 사모 세미나를 연다. 이재철 목사의 아내이자 전 흥성사 대표인 정애주 사모가 '여전히 잠언 31장'과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한다.

▲문의: 퀸즈한인교회 718-672-1150

베이사이드장로교회, 2023 여름캠프 등록 시작(NY)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7월10일(월)-8월 18(금)까지 6주간 개최될 여름캠프 등록을 시작한다. 또한 여름캠프를 위해 설립 헌신된 교사를 모집한다.

▲문의: 정승호 목사 817-378-7736, 이은혜 전도사 347-245-3471

뉴저지초대교회, 특별세미나 개최(NJ)

뉴저지초대교회(담임 박찬섭 목사)는 3월11일(토) 오전 8시 '인생은 원더풀, 떠남은 뷰티풀'이란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강사는 하이패밀리 대표이며 청란교회 담임인 송길원 목사.

▲문의: 뉴저지초대교회 201-767-0400

영생장로교회, 영생한국선교문화원 KCM(PA)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에서 KCM신입생을 모집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2시-4시이며 모집대상은 K-4학년이다.

▲문의: 강지연 전도사 267-206-6495

벤엘교회, 튀르키예 긴급구호팀(단기선교) 모집(MD)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에서 미주기아대책기구 KAFHI(사무총장 정승호 목사) 주관으로 튀르키예 긴급구호팀(단기선교)원을 모집한다. 선교기간은 3월 27일(월)-4월 1일(토)까지이며 모집기간은 3월 3일(금)까지이다. 사역은 의료봉사 및 구호 물품 지원으로 5명 내외이다.

▲문의: 장수철목사 443-545-9808

벤엘교회, 단기선교 후원음악회(MD)

벤엘교회(담임 백신종 목사)은 3월12(주일) 오후 4시 본당에서 단기선교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방대식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폴란드지역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한 단기선교 후원음악회로서 찬양을 사모하고 음악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 모든분 들을 초대한다.

▲문의: 410-461-1235



연합전도집회를 인도한 강사 이영희전도사(상)와 AKRCA 교단 목사들이 함께 기념촬영

AKRCA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연합전도집회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AKRCA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희열 목사) '연합전도집회'가 이영희 전도사를 초청한 가운데 3월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이제는 전도다!'라는 주제로 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신광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희열 목사 사회로 시작된 3일(금) 오후 8시 30분 집회는 박준열 목사(선한목사교회)가 기도했으며 신광교회 찬양대가 찬양했다. 신덕신 장로(빌립보교회)의 성경봉독 후 이영희 전도사는 '주어진 것이 있는 인생 (마 25:20-3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영희 전도사는 "잃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기만 하면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결단한 후 다시 일어나 전도자로서 사명의 길을 걸었다"말하며 "전도는 입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고 끈기있게 될 때까지 해야하며 즉시로 지금 바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말씀 마무리에 모두 일어나 "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를 함께 외쳤다.

이번 전도집회는 디모데목회 훈련(원장 이용걸 목사)에서 후원했다. 집회 마지막 날, 이용걸 목사는 "지난 3년동안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 '교회를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기도하면서 전도집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35년 동안 영생장로교회에서 전도집회를 하면서 가장 은혜받은 강사인 이영희 전도사를 초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99마리의 하얀 양과 한 마리 검은 양으로 디자인 된 넥타이를 소개했다. "한 마리의 검은 양은 잃어버린 양이다"라고 하며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뒤, AKRCA 교단 목사님을 앞으로 불러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넥타이를 선물로 전해주고 착용하도록 했다. 이어 안재현 목사(부회장, 충신교회) 광고 후 이용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기도회 후 참석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뉴욕교협 2023 부활절 연합새벽예배 16지역에서 열려

1차 성금 7천여 불 모금, 3월부터 2차 모금 시작

뉴욕교협(회장 이준성 목사)은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를 위한 1차 준비기도회를 3월6일 오전 뉴욕양무리장로교회(담임 이준성 목사)에서 열었다.

올해 부활절 연합새벽예배는 권케더린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16개 지역에서 열린다. 팬데믹 전인 2019년에는 22개 지역에서 열렸으나, 팬데믹 중에는 1개 교회에서 열렸으며, 회복기인 2022년에는 12개 지역에서 열린 바 있다. 회장 이준성 목사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교협이 추진하는 3대 메인 사업 중 하나"라며 "사업을 통해 모든 교회를 품고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다.

준비기도회는 인도 권케더린 목사(준비위원장), 경배와 찬양 살롬찬양단, 기도 박태규 목사(할렐루야준비위원장), 크로마하프 특주 김사라 목사 등 3인, 설교 김원기 목사(중경회장), 헌금기도 김정숙 목사(기도분과), 특별통성기도, 광고 유승례 목사(총무), 축도 방지각 목사(중경회장)의 순으로 진행됐다. 박이스라엘 목사(회년준비

위원장)는 부활절 새벽연합예배와 사순절 금식기도를 위해, 김주열 장로는 차세대 지도자 육성을 위해 기도했다.

김원기 목사는 "부활에 이르러(빌립보서 3:10~11)"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부활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앞서 먼저 교협을 통한 연합과 일치 사역의 중요성을 토론했다. 김 목사는 "교협은 나의 선교지이며, 교협에서 봉사하는 것을 병역의 의무같이 생각하며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했다. 김 목사는 "무엇보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그리스도"라며 특히 49회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는 표어를 내건 것을 칭찬했다. 하지만 "매년 회기들이 목표를 세우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며 "올해는 정말 표어대로 잘하는 회기가 되라"고 부탁했다. 또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과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자 돕기 1차 성금으로 7천여 불을 모금했으며,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차 모금을 시작한다고 공지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가스펠장로교회, 자선음악회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 돕기

가스펠장로교회(담임 신우철 목사)가 주최한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 돕기 자선 음악회가 3월5일(주일) 오후 5시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신우철 목사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대지진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튀르키예를 돕기위한 자선음악회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제1부는 가스펠장로교회 찬양단의 찬양 인도와 정관호 목사(뉴욕만나교회)의 사회로 시작한 자선 음악회는 임성식 목사(로고스 교회)가 기도했다. 이어 방지각 목사(효신교회 원로목사)가 '내가 긍휼을 원하고 (마 9:9-13)'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방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원하시고 최후의 심판에 우리에게 긍휼이 있었느냐 물으신다"고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긍휼을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

다"고 전했다. 이날 송우룡 목사(가스펠장로교회 협동목사) 기도 후 송원석 목사(하나선교회)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공연은 신우철 목사의 사회로 테너독창(김영환 전도사), 대금연주(윤태석 선생, 반주 Taeri Cho), 피리연주(변시환 장로), 바이올린연주(ALBINA KIM), 색소폰연주(이인철 목사), Performance(김성순 장로), 아코디온 연주(조국지), 특별찬송(Luis 장로), 트럼펫 연주(송우룡 목사), 클라리넷 합주(신우철 목사 가족), KCS 민요합창단(김정희 선생) 등의 다양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찬양했으며 자선 음악회에 힘을 더했다.

이날 노기만 장로(가스펠장로교회)는 자선 음악회 모금액 9,674불 이라고 보고했다. 신우철 목사는 "현지 터키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열 선교사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하며 "어려운 가운데도 협력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모든 순서는 신우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홍현숙 기자)



대지진 피해 튀르키예 돕기 자선 음악회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뉴욕한인교회 및 한인회 관계자들이 함께 애국지사 추모예배를 드렸다

뉴욕한인교회와 뉴욕한인회 공동으로 애국지사 묘지 찾아 추모예배

고 황기환과 염세우, 무명 애국지사와 선열들을 추모

삼일절 104주년을 맞아 뉴욕한인교회(담임 최현덕 목사)와 뉴욕한인회는 공동으로 애국지사 묘지를 찾아 추모예배를 드렸다. 3월 1일 오후 1시에 마운트 올리벳 묘지에서 열린 추모예배에서 고 황기환과 염세우, 그리고 무명 애국지사와 선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황기환 열사는 서거 100주년을 맞아 한국 현충원에 이장을 한다. 몇 해 전에 인기리에 방영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황기환 선생은 10대의 나이로 미국으로 이주하여 고초를 겪다가 제1차 세계대전에 미군 장교로 참전하고 종전 후 유럽과 미국을 무대로 독립운동을 펼쳤다.

황기환 선생은 1923년에 40세로 뉴욕에서 별세했으나 묘소 소재지가 알려지지 않다가 2008년에 뉴욕한인교회와 한인들에 의해 사망 후 86년 만

에 현 위치에서 발견되었다. 한국 정부는 황기환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했으며, 국가보훈처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황기환 선생의 유해를 대전직할시 현충원에 봉환하기로 한 바 있다.

추모예배는 사회 최병환 뉴욕한인교회 전도사, 국민의례, 애국가, 기도 김일태 뉴욕교협 평신도 부회장, 말씀 장철우 뉴욕한인교회 은퇴목사로 이어졌다. 추모사는 찰스 윤 뉴욕한인회 회장, 김의환 뉴욕총영사, 이종명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부회장, 최정수 서재필 기념재단 회장 등이 했다. 특히 존 유 뉴욕주 상원의원과 박운영 대표의 주선으로 고 황기환 열사 애국자 선포식도 진행됐다. 다 같이 삼일절 노래를 부르고, 송병기 뉴욕교협 중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예식을 마쳤다.

(정리: 김재상 기자)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교육부서 교사들과 교역자들이 함께 찬양하고 있다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교사 수련회 및 헌신예배

하나처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눈물로 기도할 때

베이사이드장로교회(담임 이종식 목사)는 3월5일(주일) 저녁예배를 교사 수련회 및 헌신예배로 드렸다. 이날 준비한 영상을 통해 "교사의 직분어림을 때가 있다. 수고한 만큼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을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격려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예수님의 격려하심을 느끼고,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아이들이 기도하는 세대로 자라나다"라며 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서 교사 및 교역자들은 "교사여 일어나라"를 찬양했으며, 이날 전해진 설교처럼 한나의 헌신과 기도로 사무엘이라는 리더가 세워진 것처럼, 같은 역사가 배양에서도 일어 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합심으로 기도했다. 또 그 과정에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아이들

을 품는 교사들이 되기를 기도했다.

교사 수련회 및 헌신예배의 강사로는 뉴욕게셋마네교회 담임 이지용 목사 "지금, 여호와께 드리나이다(사무엘상 1:19-28)"라는 제목으로 설교 했다. 이지용 목사는 "조용한 탈출"이라는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을 넘어, 한인이민 유입증 단으로 인한 고령화가 계속되고 인간 자신이 우상이 되는 무종교자들의 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세대이다. 이는 마치 자녀가 없어 슬픔에 빠진 한나와 사정이 비슷하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역전의 스토리가 있다. 한나처럼 때로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마음을 쏟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미주대회

“오직 성경이 기준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선포되는 총회”

2023 백석총회(총회장 장종현 목사) 설립 45주년 기념 미주대회가 '백석, 예수생명의 공동체(계 2:17)'라는 주제로 6일(월)부터 8일(수)까지 부에나팍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렸다. 장종현 총회장은 “백석총회 설립 45주년이 되는 2023년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미주 목회자 영성집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며 “이번 미주 영성대회를 시작으로 오직 성경이 기준이 되는 총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선포되는 총회, 서로 하나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총회로 전진해 나아가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총회서기 김동기 목사 사회로 열린 개회예배는 부총회장 주동일 장로가 기도했으며 부총회장 김진범 목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도자가 됩시다(살전 5:16-1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진범 목사는 “사람이 살다보면



백석총회 설립 45주년 기념 미주대회에서 김진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뜻을 이루기 위해 목회선상에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모아 노회, 총회 교단을 이루고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토대로 하나님께 영광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첫째 어떤 상황 환경 여건 하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다. 내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섬기듯이 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존중하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마음속에 기쁨이 불길같이 일어나

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기를 축원한다. △둘째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 온유와 사랑으로 배려하며 살 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감사가 넘치기 바란

(박준호 기자)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23 새생명축제에서 안흥기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남가주사랑의교회 2023 새생명축제 열어

“소외된 자에게 손 내밀 때 예수의 손이 될 것”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 ‘2023 새생명축제’가 안흥기 목사(글로벌선교교회)를 감사로 초청한 가운데 3일(금)부터 5일(주일)까지 ‘함께 할까 YOU’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세키나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노창수 목사 사회로 열린 5일(주일) 3부 예배는 김장섭 장로가 기도했으며 호산나찬양대가 찬양했다. 이어 안흥기 목사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행 11:19-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안흥기 목사는 “우리가 좋아하는 자는 보았다고 하고 아름다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자인데 본문의 바나바는 공공의 적이고 예수 믿는 자를 죽였고 가까이 하기 싫은 자였던 사울을 교회에 소개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안 목사는 교도소 사역을 하며 사형수와의 교제를 소개했다. 그는 “한 사형수의 경우 자신이 죽인 자들 중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있는 곳은 천국이 아

다. △셋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김지범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번 미주대회는 둘째 날 오전 성종현 교수(백석대학교 교수, 백석정신아카데미 사무총장)가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연혁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인도했으며, 임병희 목사(45주년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가 ‘백석총회설립 45주년 준비위원회 보고’, 김종명 목사가 ‘총회의 현재와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인도했다. 또한 백대현 목사가 영성집회를 인도했다. 회의록서기 최도경 목사 사회로 열린 폐회예배는 김만열 목사(정주영안교회)가 기도했으며 이규환 제2부총회장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왕하 2:9)’라는 제목으로 설교와 축도했다.

서부교계 게시판

나성한인교회, 전도집회 ‘이제는 전도다’

나성한인교회(담임 신동철 목사)에서 디모데목회훈련원(원장 이용걸 목사)이 주관하고 KAPC 가주노회, 남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서가주노회, 동가주노회, 북미주서노회가 후원하는 전도 집회가 ‘이제는 전도다’라는 주제로 17일(금) 오후 8시, 18일(토) 오후 7시에 열린다. 강사는 한국에서 8천명을 전도한 이영희 전도사. 한편 20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바울의 영성과 목회철학’ 강의를 갖게 된다. 강사는 이용걸 목사(필라델피아신학교 원로)이며 강의와 함께 이영희 전도사 간증시간도 갖게 된다.

▲ 문의: (323)221-9531, (714)873-7404, lacpckm@gmail.com

감사한인교회 창립 40주년 기념 및 임직식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17일(금)부터 19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성회의 강사는 손병렬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에 배시시간이다. 한편 19일(주일) 오후 4시에는 임직식을 갖게 된다.

▲ 문의: (714)521-0991

심형진 목사 스톤게이트 찬양집회

샌디에고갈보리장로교회(담임 김도일 목사)는 심형진 목사 스톤게이트 찬양집회를 17일(금) 오후 7시에 갖는다. 또한 18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 예배학교가 열린다.

▲ 문의: (610)800-0926

인랜드교회 ‘만나며 사랑하며’ 일일세미나

인랜드교회(담임 안환 목사)는 만나며 사랑하며 일일세미나를 1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송영선 목사(빌립보 교회 원로), 김성모 목사(빌립보교회 선교담당)이며 송순욱 사모가 간증을 한다.

▲ 문의: (909)993-7380

제3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

제3회 투산영락교회 목회자 세미나가 ‘이민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오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3박4일간 투산영락교회(담임 장종렬 목사)에서 개최된다. 강사는 장종렬 목사이며 모집인원은 30가정(60명) 선착순이다. 접수비는 100달러

▲ 문의: (520)390-4447



고 박인수 교수 전국환송예배를 마치고 유가족과 고인의 제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고 박인수 권사 천국환송예배

‘향수’ 로 음악계에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장르 개척

지난 2월28일(화) 오후 5시2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 박인수 교수(권사) 천국환송예배가 3일(금) 오후 6시 LA한국 장의사에서 있었다. 김종환 목사(온마음교회) 집례로 시작된 천국환송예배는 오위영 목사가 기도했으며 김종환 목사가 ‘성도는 죽음조차도(시 116:1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고인의 제자 서정화 선생, 고인의 친구 이우철 장로, 고인의 막내동생 박정수 성도가 조사했으며 고인의 제자들이 고인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 ‘나 가이안 땅 귀한 성애와 향수’를 조가로 불렀다. 이어 ‘박인수 권사의 삶, 가정, 신앙, 그리고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고인의 삶을 회상하는 영상이 소개되었다. 이날 예배는 김종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고 박인수 교수는 1938년 5월 13일 출생했으며 1965년 11월 12일 아내 안희복 여사(전 한세대학교 교수)와 결혼했다. 학력으로는 경동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줄리아드 음대, 맨해튼 음대(

석사), 백석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20년간 봉직했다. 서울대에서 정년 은퇴 후 백석대학교에서 석좌교수로 역임했다. 연주경력으로는 마탄의 사수(1967년), 사랑의 묘약(1968년), 라보엠(1969년) 등 2003년 은퇴하기까지 약 300편의 오페라에 출연했다. 또한 가수 고 이동원과 ‘향수’를 불러 한국 음악계에 ‘크로스오버’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상훈으로는 2011년 은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 그나 가이안 땅 귀한 성애와 향수를 조가로 불렀다. 이어 ‘박인수 권사의 삶, 가정, 신앙, 그리고 음악’이라는 제목으로 고인의 삶을 회상하는 영상이 소개되었다. 이날 예배는 김종환 목사 축도로 마쳤다. 고 박인수 교수는 1938년 5월 13일 출생했으며 1965년 11월 12일 아내 안희복 여사(전 한세대학교 교수)와 결혼했다. 학력으로는 경동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줄리아드 음대, 맨해튼 음대(

(박준호 기자)



정학기금모금골프대회를 설명하는 황선철 공동 대회장(가운데), 안신기 총괄 준비위원장(오른쪽), 제련이 회계



OC전도회연합회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OC전도회연합회 414회 조찬기도회

“연합운동,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이뤄가야”

오렌지카운티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414회 조찬기도회가 4일(토) 오전 8시 에반겔리아대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신용 회장 사회로 열린 1부 연합조찬기도회는 오렌지카운티내 교계단체들과 연합으로 드렸는데 엄제선 장로가 대표 기도했으며 김기동 목사가 ‘성령충만과 부흥(눅 4:18-19)’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기동 목사는 “연합운동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과 사역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의 은혜 나누고 나아가고 놀라운 성령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신용 회장의 인도로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박재만 목사(OC교협부회장)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선자 목사(세계기독교어머니기도회)가 ‘대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종식을 위해’, 이원석 목사(OC목사회장)가 ‘해외한인선교사를 위해’, 김용진 장로(OC장로협회장)가 ‘OC지역사회와 교회, 목회자를 위해’, 이경신 목사(OC여성목사회장)가 ‘OC교계단체와 연합을 위해’ 그리고 전홍연합운동을 함에 있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처럼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과 사역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며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면 주님의 은혜 나누고 나아가고 놀라운 성령충만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신용 회장의 인도로 중보기도

(박준호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를 마치고 단원들이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한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창단음악회 성황리에 열려

오렌지카운티한인필하모닉 오케스트라(지휘 이지환, OC필하모닉) 창단음악회가 5일(주일) 오후 7시 칼스테이트 롱비치에 있는 카펜티스 퍼포밍 아트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음악회는 베토벤 심포니 5번 운명교향곡과 7번 교향곡이 연주되었다. OC필하

모닉 설립자 클라라 리 박사는 “첫 번째 음악회가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져주셔서 기쁘다”라며 “OC필하모닉은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사명이라 생각되며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될 일이 기대 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기독교실업인회 제2회 장학금 모금 골프대회

‘서부지역 거주자로 학업성과 활동 내역 기준’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총회장 강승태)는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까지이다. 출인원은 상금 3만 달러이며 올해 대회 특별 후원은 한솔 보현, 사회 메디컬 그룹, 세계한인 교민청, OC한인상공회의소, 제너럴 파이낸셜 그룹 등이다.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는 지난해 제1회 골프대회에서 마련한 4만여 달러의 기금으로 1인당 2,000달러(20명 내외)의 장학금을 지불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2-30대 초반 미 서부지역 거주자(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밴쿠버, 하와이)이며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학업 기간에 기록 정신에 기반한 활동 내역과 계획(편지 용지 1매 이상의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 제출) 등이다.

행사 및 장학금 신청 문의: 안신기 총괄 준비위원장(909) 677-002677-0028 (정리: 박준호 기자)

년), 접수 마감은 오는 3월 18일 오후 5시까지이다. 출인원은 상금 3만 달러이며 올해 대회 특별 후원은 한솔 보현, 사회 메디컬 그룹, 세계한인 교민청, OC한인상공회의소, 제너럴 파이낸셜 그룹 등이다. 미주한인기독교실업인회는 지난해 제1회 골프대회에서 마련한 4만여 달러의 기금으로 1인당 2,000달러(20명 내외)의 장학금을 지불했다. 이번에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은 2-30대 초반 미 서부지역 거주자(가주, 워싱턴, 콜로라도, 네바다, 애리조나, 밴쿠버, 하와이)이며 선발 기준은 학업성적, 학업 기간에 기록 정신에 기반한 활동 내역과 계획(편지 용지 1매 이상의 추천서 또는 자기소개서 제출) 등이다.

행사 및 장학금 신청 문의: 안신기 총괄 준비위원장(909) 677-002677-0028

(정리: 박준호 기자)



“하나님의 때에 통일 맞이하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국컴패션, 7일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 개최

올해로 북한사역 10주년을 맞은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컴패션(대표 서정인 목사)은 7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3 컴패션 북한 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를 개최했다. 주제는 ‘프롬 코리아 투 코리아(From Korea To Korea)’다.

서정인 대표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북한의 문이 열리기 전부터 북한 사역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하나님은 준비된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한국컴패션은 북한사역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164개 교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인적 어린이 양육 및 전문가 훈련 프로그램과 교재 개발 등 다양한 자원을 제공했다. 2015년부터 현재까

지 컴패션 사역훈련 기초와 심화 과정을 수료한 북한 어린이 양육 전문가 1800명 이상을 배출하며 북한이 열릴 때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파트너십을 맺은 교회는 북한 어린이센터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인적·재정 준비 등을 하고 있다. 2017년 북한사역 ‘파트너스 소사이어티’에서는 66개 교회가 향후 북한에 어린이센터를 설립할 지역을 선정했다. 한국컴패션은 호국보훈의 달인 오는 6월 한국교회가 ‘2023 북한 사역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교회학교 및 소그룹 공과 교재, 가정예배 자료, 개인 목상집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매일 두 차례씩 북한의 최신 상황을 담은 기도 제목과 영성도 파트너십 교회에 지원한

다. 양승구 한국컴패션 부대표는 “정기적인 콘텐츠를 통해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북한에 대해 기도하고 교회와 북한 사역을 준비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 분석과 전망, 그리고 한국교회가 가져야 하는 마음가짐”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영유아기 시기부터 12년간 주입식 교육을 강화했다”며 “어릴 때부터 철저히 수령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북한에 컴패션 사역이 들어가면 처음엔 거부감이 심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가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컴패션의 어린이 사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 정권 때 남북 관계가 순항을 타는 듯했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후 여전히 경색된 남북관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한국교회가 준비되면 북한의 문은 언제든지 열릴 것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준비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와 청년 문화에 선한 영향을 미칠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농촌교회 살리자면서 관련 부서는 통폐합”

예장통합 기감 기장 농촌 선교 단체 7일 정책토론회 개최

농촌교회를 살리기 위해 3개 교단이 머리를 맞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장 이철 목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총회장 강연홍 목사) 산하 농어촌 선교단체가 7일 서울 중구 새길기독교문화원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3개 교단 단체가 공식적으로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농촌교회가 직면한 위기가 크다는 의미다.

참석자들은 각 교단이 진행하고 있는 농촌선교 정책을 함께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교단들은 농민 기본소득 제 법제화 추진, 도농교회 협력사업, 생활협동조합 조직, 귀농·귀촌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었다. 특히 예장통합은 총부

장주 ‘장신영농조합’을 통해 농촌 목회자 연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기감은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으로 농어촌 가족에게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다.

교단들이 농촌교회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농어촌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추세는 안타까운 부분으로 지적됐다. 김정은 예장통합 농어촌목회자협의회 사무국장은 “많은 총회 농어촌 관련 부서가 단독 부서로 활동하지 못하고 통폐합되는 상황”이라며 더 적극적인 농촌 살리기 운동을 주문했다.

유홍근 기감 사회농어촌환경부장은 “최근 농어촌교회 50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 대다수 목회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며 “이들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고, 찾아가고 싶은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교단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목포극동방송 도약 통해 더 큰 부흥의 불길 일어나길”

옥암동 신사옥 이전 감사예배

목포극동방송이 기존 사옥에서 차로 7분 정도 떨어진 신사옥에 새 둥지를 틀었다. 전남 목포시 정의로 30(옥암동)에 자리한 새로운 사옥은 연면적 860㎡ 규모이다. 200석의 공개홀과 주조정실, 각종 스튜디오, 편집실, 카페테리아(식당), 사무실 등을 갖췄다.

목포극동방송은 지난 3일 신

사옥 공개홀에서 ‘사옥 이전 감사예배’를 개최했다. 예배는 조명재 목포극동포럼 회장의 사 회로 고삼수 목포권기독교근대역사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의 기도, 최옥주 장흥운영위원장의 성경 봉독에 이어 곡균용 양동제일교회 목사가 설교했다.

곽 목사는 설교에서 “이제까지 많은 열매를 맺은 목포극동

방송이 신사옥에서 더 널리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 참석자들은 송출 버튼을 함께 누르며 신사옥 첫 방송을 시작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강환 목사는 인사말에서 “목포극동방송은 전남 서남권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힘입어 신사옥으로 이전했다.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려 한다. 더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도록 계속 동역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감사예배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홍률 목포시장, 문자복 목포시의회 의장 등도 축하했다. 대표 축사를 한 김 도지사는 “200만 전남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직 순수 복음 방송만을 해온 목포극동방송은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고 도민의 지친 마음에 평화와 희망을 전했다”고 했다.



“일대일 사랑 못 받는 보육원 아이들, 지속적인 돌봄 사역 절실”

‘야나’ 홍보대사 배우 신애라씨 매칭 사역 만나교회서 특강

“전국 250여개 보육원과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수만 명의 아이는 부모의 일대일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군대처럼 단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을 돕고 싶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도와야 할지 막막한 성도님들 많으시죠? 하나님이 고아와 같은 우리를 돌보신 것처럼 교회도 보육원 아이들

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역에 나서야 합니다.”

사단법인 야나(YANA·You Are Not Alone)의 홍보대사인 배우 신애라씨는 지난 4일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김병삼 목사) 다니엘홀에서 열린 ‘야나 아카데미’에서 성도들이 보육원 사역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2012년 보호받고 사랑받

지 못하는 아동을 돕기 위해 ‘야나 USA’가 설립됐다. 2017년 ‘야나 코리아’가 설립됐으며 지난해 사단법인으로 승인받았다. 현재 18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한부모 사역, 위탁·입양 가정과 시설 지원 등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 야나는 파트너십을 맺은 단체의 사역을 지원하면서 일반인이 봉사과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50여개 협력병원과 함께 의료 지원도 한다.

야나는 서울 순전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만나교회와 지역 보육원을 매칭해 보육원 사역을 시작하도록 했다. 만나교회는 보육원 아동과의 ‘일대일 나들이 봉사’와 아동 치료(병원, 상담실 등) 인솔, 학습 봉사, 재능기부 등의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등 본격적인 일대일 매칭 사역에 시동을 걸었다.

신씨는 가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보육원 아이 가운데 상당수가 ‘경계성 지능장애’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육원에서 보육사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다”며 “아이들은 자신의 울음에 보육사가 바로 반응해주지 못하는 걸 알고 우는 것을 포기한다. 일대일 접촉이 많지 않다 보니 일반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보다 뇌의 발달이 더디다”고 밝혔다. 신씨는 보육원 아이들과 연계돼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바로세우기 “총회 세습자정노력 계속해야”

7일 성명 발표 “자정 노력 포기하면 사회 향해 진리 선포 못해”

최근 대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자격을 인정한 데 대해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가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치욕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성교회 사유화를 지지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불법세습이 젊은 세대에는 공정성 훼손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은 선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교권주의자들로 인해 교단이 몰락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돼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세습금지조항을 폐기하고자 하는 음모도 꿈틀대고 있다”면서 “총회가 자정 노력을 포기하면 이는 사회를 향해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세습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명성교회 대표자 자격을 인정한 데 대해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회장 양인석 목사)가 “힘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옹호하고 사법 정의를 훼손한 치욕스러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상고심인 대법원은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는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명성교회 사유화를 지지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불법세습이 젊은 세대에는 공정성 훼손으로 받아들여 졌으며 명성교회의 불법세습은 선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성교회 세습을 두둔하는 교권주의자들로 인해 교단이 몰락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장통합총회바로세우기연대는 “이런 상황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의 세습금지법은 무용지물이 돼 담임목사들이 세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며, 세습금지조항을 폐기하고자 하는 음모도 꿈틀대고 있다”면서 “총회가 자정 노력을 포기하면 이는 사회를 향해 진리를 선포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세습반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은 교회 돕자” ... 최저생계비·예배당 전세금 지원

기성 지방회 안전 들여다보니...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김주현 목사)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형제 교회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 6일 기성에 따르면 최근 끝난 55개 지방회 정기회에서 작은 교회를 돕자는 다양한 안건이 결의됐다. 지방회는 장로교단 노회 개념으로 지역별 교회 모임이다.

강원서지방회(지방회장 강성용 목사)는 작은교회 목회자의 최저생계비를 후원하기로 하고 사전 조사를 진행한다. 사례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운 형제 교회 목회자를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미자립교회를 찾아가 필요한

재정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후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원서지방회 국내선교위원장인 이주호 목사는 “지방회 예산과 큰 교회들의 지원금을 통해 재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회 소속 교회가 80여곳 되는데 그중 20여곳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작은교회 목회자는 많은 성도가 도시로 떠나는 와중에서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다. 그들이 목회 소명을 이어가도록 도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회(지방회장 최성주 목사)는 지방회비를 0.5% 인상해 그 금액을 작은교회가 예배

당을 마련하는 일에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지방회는 현재 9개 교회가 월세로 예배당을 임대한 상태다. 이 교회들이 전세라도 얻어 임대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산하 교회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인천동지방회(지방회장 박한선 목사)가 두 개 교회에 총 9000만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인천서지방회(지방회장 김영민 목사)는 성장하는 작은교회에 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지교회 성장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회에서는 오는 5월 열리는 교단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도 결의됐다. 헌법개정안으로는 목사와 장로의 시무 정년을 만 71세 되기 전까지로 연장하는 건과 권사의 최소 나이를 현행 45세에서 35세로 조정하는 건이 나왔다. 정년 관련 건은 올해 정부가 만 나이를 도입하는 제도에 따른 것이며 권사 나이 자격 완화는 교회를 이끌 젊은 일꾼을 많이 배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회장 후보로는 현 부총회장인 임석웅(대연성결교회) 목사가 지방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는 류승동(인후동교회) 정성진(열방교회) 목사가 각각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경선을 치를 전망이다.

피종진 목사 3월 부흥성회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총신대학교 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영어 연구원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ik(Th.D)

1(수) 저녁 서울 강남반석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목) 오전 서울동합센터 UBN 국제재단 (이사장 정혜정)
 3(금) 오후 서울신학교(학장 김준환 목사) 주최: World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사장 정진희 목사) 010-7567-8291
 4(토) 오후 서울 문화예술 율령대강당 주최:(사)세계문화예술총연합회 (이사장 한장석 목사) 010-3927-0691
 5(주)저녁~(8)수 무안 총만교회 (안창남 목사) 010-2471-6266
 9(목) 오전~오후 청원 성소기도원 (원장 박정원 목사) 010-9261-2922
 10(금) 오후 서울 더기쁨교회 (오세영 목사)
 저녁 서울 임마누엘교회 (남윤정 목사) 010-3234-1613
 주권 한국부흥사회 (대표회장 정인철 목사) 010-3224-2345
 광주 푸른초성교회 (김동영 목사) 010-3770-5279

제 228차 해외성회 (228th Overseas Assembly)
 13(월)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총회신학 (학장 정세태반 선교사)
 14(화) 일본 (JAPAN) 동경 나라타 사랑교회 (정세태반 선교사)
 15(수) 일본 (JAPAN) 동경 Carmel 기도원 (원장 김태실 목사)
 16(목) 일본 (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전도 집회 및 특별행사 (일본 선교회) 귀국
 20(월) 오후 일산 예수찬양교회 (전우영 목사) 010-2773-2365
 21(화) 오전 인천 행복오르기교회 (최기석 목사) 010-5278-0065
 저녁 서울 강남반석기도원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22(수) 오후 포천 엘리자베스교회 (원장 강인복 목사) 010-3247-9392
 주최: 한국기독교 연합부흥사회 (서재은 목사) 010-7142-2548
 23(목) 저녁 서울 위대한의교회 (임미향 목사) 010-6201-8374
 24(금) 오후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중섭)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25(토) 오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권영지 목사) 010-5603-4979/한국교도100주년 기념회관
 포항 샘물교회 (박민정 목사) 010-3739-4442
 27(월)~29(수) 서울 강남성교회 (강사랑 목사) 010-8331-3431
 30(목) 저녁 대(예수교로) 동서울교회 (회장 피종진 목사) 010-3162-8680
 31(금) 오전

대한예수교장로회 www.nscs.or.kr
남서울중앙교회 Tel. 02)3411-9191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가포동) Fax. 02)401-7770

mission 선교의 창 (212)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25시를 사는 비범한 사람

“25시”란 무엇인가? 이 말은 원래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기우(Gheorghiu, C. V.)가 1949년에 발표 한 소설 “25시”에서 유래한다. 그는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농부 모리츠를 통해 나치스와 볼셰비키의 학정과 현대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여기서 “25시”란 하루 스물네 시 다음의 시간으로서 이미 지나 버린 불안과 절망감을 상징한다. 그런데 과거의 돌이킬 수 없는 시간 “25시”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는 24시간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매우 바쁘고 분주한 삶의 의미로 바뀌어 쓰이고 있다. 최근 한 예로 마스크에 “사건 25시, 추적 25시, 팩트북 25시, 특파원 25시, 연애가 25시” 등이 있다. 이처럼 현대인은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인생도 승패가 갈린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촘음(寸陰)을 아끼며 살았다. 세월을 낭비하면 불행하게 된다. 시간은 냉엄하며 멈춤이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함몰시키는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깨어서 인생을 계수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 사람들 중에서도 선교사는 더욱 그러하다.

1. 유한한 인생 (80 = 701,280 시간)

우리의 년 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년 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인생여백구과곡(人

生如白駒過隙)이란 말이 있다. 그 뜻은 인생은 문틈으로 백마가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같이 삼시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이다. 영국의 타블로이드 신문 “더 선(The Sun)”지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80년으로 잡고 일생동안 항목별로 얼마의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게재된 바 있다. 80년은 701,280시간이다.

요구인 317,840시간을 뺀 383,440시간(44년)이다. 따라서 인간은 임으로 가용할 수 있는 383,440시간(55%)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다시 말해 생리 욕구적 시간은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적용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선용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는 24시간(하루)X365일X80년=700,800시간에 윤달인 해 20년X24시간=480시간을 더하면 된다. 그중 가감할 수 없는 생리적 욕구인 “수면(성적 욕구 포함)은 하루 8시간 11분으로서 총 239,000시간이며 약 27년에 해당된다. 음식 섭취는 하루 1시간 48분으로서 총 52,560시간=6년이다. 화장실 사용은 하루 54분으로서 26,280시간=3년에 해당된다. 이를 합산하면 인간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생리적 욕구를 위해 총 317,840시간(36년)을 소모하게 된다. 이는 인생의 45% 시간 분량으로서 가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은 얼마인가? 80년 인생 살이 701,280시간에서 생리적

2.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가 탄생된 계기

1849년 12월 22일, 러시아 세묘노프 광장은 군인들과 많은 구경꾼들로 북적거렸다. 임시로 설치한 사형(死刑)대 위에는 반체제 혐의로 잡혀 온 28세의 청년이 다른 동료들과 함께 묶여 있었다. 집행관이 소리쳤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사형수는 절망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祈禱(기도)했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

리지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도 지남을 알렸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되게 살았을까?”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다. 사형수(死刑囚)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 없겠구나,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겠구나, 모든 것이 아쉽구나!” 그는 처음으로 느끼는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刑場)으로 달려왔다. 사형대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다. 사실 황제는 젊은이들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다. 단지 “혁명 놀음”을 하겠다고 설치는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처형 쇼를 한 거였다. 아무튼 내막을 모른 도스토예프스키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그는 동생에게 편지를 썼다. “지난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

3. 이십오시를 살 수 있는 삶의 비결

로마제국 시대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말했다. “인생 자체가 짧다는 생각은 틀렸다. 인생은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인생을 유용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을 보면 3종류 삶의 형태가 있다. 세월의 속도에 보조를 맞추어 가는 사람, 아예 뒤쳐져 끌려가는 사람이다. 역사에 자취를 남긴 위인들 대다수는 정해진 시간을 초월하는 밀도 높은 삶을 살았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첫째 인생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한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방황하게 되어 있다. 둘째, 목표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 요구된다. 아무리 인생뜻대가 분명하다 해도 구체적 설계가 없으면 기대치에 접근할

지식적 한계, 체력적 한계, 재정적 한계, 시간적 한계 속에 있다. 그러므로 늘 영이 깨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하루 25시를 산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세속에 떠밀려가기 쉽다. 모름지기 주의 일을 하는 자는 비범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드러낼 수 없다는 말이다.

맺음 말

우리에게서 25시란 무슨 의미인가? 이는 매일 한 시간이 더 필요할 정도로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미래 지향적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숨겨진 시간이다. 똑같은 하루지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온다. 성경은 인생이 강건하면 80년이라 했다. 이는 701,280시간이다. 이중 1/3시간은 일생동안 잠을 잔다. 실제로 깨어서 활동하는 시간은 일생의 3분의 2에 해당 된 셈이다. 무엇보다 생리적 요구인

지도자는 비범(非凡)해야 한다.
25시란 물리적 시간 체계를 뛰어넘는 꼭 찬 삶을 의미한다.
주의 일은 늘 깨어 세상을 앞질러 가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이제 내 인생은 바뀔 것이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다.” 그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시베리아 움스크 감옥에서 4년 간 유형생활을 마치고 이어서 4년의 군대 복무를 했다. 비로소 자유인이 된 그는 인생을 “5분의 연속”이란 각오로 1881년 2월 9일 눈을 감을 때까지 글쓰기에 전념했다. 러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문호가 이렇게 탄생된 것이었다. 만일 그가 사형수로서의 체험이 없었다면 남은 생애를 25시적 긴장감으로 살지 않았겠고 “죄와 벌”같은 불후의 명작도 없었을 것이다.

수 없다. 셋째, 의지적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 행함이 없이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만 하면 역사의 진보는 없다. “생각은 신중하게, 결단은 단호하게, 행동은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틈틈이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일에 파묻혀 정신없이 살다 보면 때로는 좌표를 잃고 엉뚱한 곳을 향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기와 사역을 체크함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와 같이 4가지 삶의 방식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역적으로 요긴하다. 선교 프로젝트는 클수록 그 위험성도 비례한다. 선교사는 타 문화권에서 언어적 한계, 문화적 한계,

317,840시간(36년)을 뺀 나머지는 383,440시간(44년) 뿐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 생명의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자 앞에서 늘 겸허해야 한다. 그 한 방편은 인생을 계수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25시적 삶을 영위하게 된다. 사형 일보직전의 체험을 한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러했다. 이로써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와 공동체를 위해 세월을 앞서가야 한다. 선교사는 영적 지도자이다.

jrsong007@hanmail.net

인문학으로 읽는 예수님 생애

⑨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2) 십자가의 의미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황제 콘스탄틴은 십자가를 보고 개종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후 그는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성지 순례와 예수님 유적발굴을 후원합니다. 그때 성지 순례와 예수님 유적발굴을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주도하였고, 헬레나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알려집니다.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성지를 찾아가던 헬레나는 골고다에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두 개는 강도들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관건은 예수님 십자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헬레나는 세 개 십자가를 두고 중병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셋 중에 한 십자가에서 그 환자가 치유되자 그 십자가를 예수님 십자가로 인정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가 환

상을 보고 회심한 것은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자신의 저서 “콘스탄틴의 생애(Life of Constantine)”에서 콘스탄틴 황제의 회심과 그의 신앙생활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황제의 십자가 체험을 소개합니다. 한편 유세비우스는 자신이 소개하는 사실들이 콘스탄틴 황제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고 맹세하며 사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콘스탄틴은 그가 황제로 등극하기 위해 중요한 전투를 치를 때 예수님 십자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고 프랑크 지역 장악과 로마 지배를 위해 중요한 ‘밀비안(Milvian)다리’ 전투를 앞두고 기도했는데 하늘에 십자가 형상이 보이고 “이것으로 승리하라!”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광경을 콘스탄틴과 그의 군대가 함께 보고 모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날밤 콘스탄틴은 꿈을 꾸니다. 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 십자가를 보여 주시고, “이것으로 승리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콘스탄틴은 순종했고 그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콘스탄틴은 승리하였고 실권을 장악한 로마 황제가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합니다.

십자가 환상은 콘스탄틴에게 개종의 기회가 되었고, 포교의 확신을 주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의미로 십자가형을 폐지합니다. 로마제국은 이후에 십자가 사형은 공식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은 의아할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는 초대교회 사역과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행 4:10, 5:30, 갈 6:14). 그런데 십자가가 4세기 콘스탄틴 이후에 주

목을 받았다는 것이 의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십자가는 ‘막대기’ 혹은 ‘장대’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십자가로 번역하는 헬라어(스타우로스)는 긴 장대, 혹은 긴 막대기로 번역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헬라어(스타우로스)는 ‘나무에 매달다(마27:44)’ 혹은 은유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적 일체감(롬6:6, 갈 2:20)’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이 말하는 십자가는 현대 교회가 사용하는 십형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대제 이전까지 교회는 십자가(Cross)가 아닌 나무 형체에 매달린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헬레니 발견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지금 우리가 보는 십형 십자가(라틴

십자가)였고, 콘스탄틴이 환상으로 보았던 십자가도 십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십형 십자가(라틴 십자가)를 공식적인 기독교 신앙의 상징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 십자가 숭배 사상이 등장했을까요? 사실 십자가 숭배는 바벨론 역사에 등장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숭배했던 티무즈(Timuz)신의 상징물이 T자형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종종 십자가 기원을 말할 때 앗수르(매달아 죽이는 사형법 역사)와 바빌론(십자가 숭배의 기원)을 언급합니다.

콘스탄틴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교회당을 성지에 건축하면서 십형 십자가를 게시했고 황제가 사랑하고 사용하는 십자가는 전 교회가 사랑하고 사 용하게 되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콘스탄틴의 밀비안 다리 전투의 일화를 아는 로마 군단장들은 십자가를

자신들의 군단 부대기(Flag of Corps)에 달았습니다. 나중에 기독교 신자가 된 각급 부대 지휘관들도 부대 단결을 도모하고 승리를 기원하며 십자가를 부대기에 달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갖는 의미를 찾았고 교회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양하게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이레네우스는 소위 “총괄경신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가 아담으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오리겐이 주장한 사탄 보상설이나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가 설명한 도덕 감화설 등등이 있습니다. 다소 문 제도 있고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모두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축복을 설명합니다.

십자가는 앗수르 이후 제국들이 사용한 사형틀이었습니다. 특히 헬라와 로마 시대에 십자가는 치욕과 저주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고백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을 이해하며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희생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Kangtg1207@gmail.com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서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왕상 8:41~43) 찬 220장

솔로몬은 성전 건축공사를 마친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지성소에 모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으로 나타난 여호와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왕상 8:1~11).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성전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성전을 짓게 된 경위를 알려줍니다(왕상 8:12-21). 그 후, 솔로몬은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성전은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왕상 8:41-43). 교회도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환영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품고 환영하는 교회가 됩시다.

화 하나님의 당부 - 다윗처럼 행하라! (왕상 9:4~7) 찬 40장

성전 봉헌식까지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다윗처럼 행하라'고 다시 당부하십니다. 그러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성전도 헐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도와준 두로 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스무 곳을 선물로 주고, 성전과 왕궁 이외에도 많은 건축 사역을 하며, 흥해 근처에 있는 '에시온게벨'이라는 지방에서 배도 만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고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직

접 확인한 스바의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솔로몬이 가졌던 재산과 지혜는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군대 병력도 큰 규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거듭 당부하신 것은 '다윗의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온 삶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웁시다.

수 '숫자' 라는 우상(왕상 10:28~29) 찬 28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외에 '더 많은 군사력'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자는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아야 하며, 병거와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더 큰 숫자'를 위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숫자'가 그의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숫자'라는 우상을 버립니다. 더 많은 봉급, 매출액, 규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숫자에 집착하면 우상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방법과 모습이 있지만, 성도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목 선한 씨앗을 심읍시다. (왕상 11:1~3) 찬 521장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화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타락합니다. 일천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내 두기를 금하신 이유는 그 여인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들이 들어온 우상을 열심히 섬깁니다. 솔로몬은 결국 노년에 배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배교한 것은 하루아침에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그는 왕으로 취임할 때부터 이미 애굽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더니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그 여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타락했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바로의 딸 한 명'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 씨앗이 되어, 엄청난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내일 무엇을 거둘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읍시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금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왕상 12:25~33) 찬 257장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 남자들은 일 년에 세 차례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 유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벧엘'과 '단'에 각각 금 송아지 한 마리씩 만들어 배제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습니다.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정함

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흔한 종교'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것이 여로보암의 큰 죄악이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우상 섬기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유사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비슷해 보였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100% 진짜만 진짜입니다. 유사품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토 갈멜산 전투 (왕상 18:20~40) 찬 267장

엘리아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진짜 신을 가려내는 전투를 벌일 예정입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모였습니다. 엘리아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일테니, 서로 제사를 지낼 때 어떤 신이 불로 응답하는지 보자'고 제안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부터 제사를 지내보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사를 지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과 나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도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둥 속에서 다 죽입니다. 하나님만 참 신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숭배하며 삽니다. 예컨대, 돈이나 명예 혹은 권력이나 건 강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 을 사랑하는 것은 곧 바알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교육 (23)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목사는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이고, 영어로는 pastor라고 합니다. 영어성경(KJV)의 구약에는 pastor가 8번 등장합니다(렘 2:8; 3:15; 10:21; 12:10; 17:16; 22:22; 23:1; 23:2). Pastor는 히브리어에서 양을 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의 구약은 pastor를 대부분 "목자"라고 번역했습니다(렘 2:8에서는 "관리"). 예, 예레미야 3: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 즉, 봉사자를 양성하고, 역할을 분담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역의 첫 단계는 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12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목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성도를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여 봉사자로 세우는 일은 기독교교육의 목표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약성경에는 목사는 이름이 에베소서 4:11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러나 목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때로는 목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0:11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지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사자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목사는 그것이 성경적이고 필수적인 일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하고, 교육과 훈련에 시간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분이 되는 삶을 사는 것,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것, 좋은 교재들을 활용하는 것, 사람들을 세미나나 워크숍에 참여시키는 것, 다른 교회를 방문하게 하는 것, 리더십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청하는 것. 사례를 받는 동역자가 없는 목사에게는 자원봉사자 훈련이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회중 가운데 한 리더가 목사의 일을 도울 수도 있겠습니다.

목사의 사역은 때로 혼란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선포의 사역이 효과적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말씀을 선포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해야 합니다.

목사의 사역에 있어 봉사자를 세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분담입니다. 분담은 사역의 권리와 책임을 나누는 것으로서, 행정의 핵심이고 탈전의 해결책입니다. 목사가 효과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분담하고 어떻게 분담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사역 중 교회를 이끄는 일은 매우 중요 합니다. 목사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스스로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교육을 통해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설교도 교육적이어서야 하며, 기독교교육을 지원하는 리더십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 목사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일, 목회 영역 밖의 일, 신학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등은 분담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일, 팀워크 개발하는 일, 감동하고 지도하는 일, 중요한 처벌에 관련된 일, 목회의 기본적인 활동 등은 분담할 수 없습니다. 분담의 방법이 있어서는, 분담할 수 있는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되 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책임감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간섭하지 않으면서 감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기독교교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교육의 중요성 강조하기, 사람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알리기, 회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설교를 전하기,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본을 보이기, 기독교적인 가정생활 장려하기, 기도와 경건의 생활을 강조하기, 바른 교리 설교하기, 복음의 원리를 매일의 삶에 적용하기, 사람들에게 예배를 훈련하기, 교육을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등등. 목사가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 회중은 자신들이 성장해야 할 필요성과 성장이 필요한 분야를 깨닫고 기독교교육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독교교육을 비롯하여 교회의 모든 사역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궁극적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목사는 정기적으로 교회의 사명선언문에 비추어, 장단기 목표에 비추어, 회중의 필요에 비추어, 지역사회의 변화에 비추어, 교회의 인적, 재정적, 물리적 자원들을 평가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는 소명 받고 훈련된 유급 사역자가 많지 않습니다. 목사가 혼자 자기관리와 시간관리를 통해 모든 일을 스스로 처리하면서 때로는 한계를 느낍니다. 그들은 자원봉사자들을 개발하여 사역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동역자로 삼아 함께 일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아무리 소수가 모이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목사가 혼자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명하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양 무리를 책임지는 목사로서 목사는 기독교교육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목사는, 특히 곁에 유급사역자가 없는 목사라면, 기본적인 행정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jonk@db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윗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동남아시아 1국

▲ 종족명
톤텨보안 종족

▲ 인구
20만 명

▲ 종교
기독교

▲ 기타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사람들'이란 의미

▲ 프로젝트 소개
2002년 다중 언어 신약 성경 번역 프로젝트로 시작되어 2018년 11월 톤텨보안어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다. 예수 영화도 제작되었다.

▲ 프로젝트 진행
재정후원 단체로부터 승인이 나는 대로 구약 성경의 일부 번역을 시작할 예정이다.

▲ 기도제목
1. 톤텨보안어 신약 성경이 교회들에서 잘 활용되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고 신앙이 성숙해 가도록
2. 구약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선교 편지

우간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하시는 소망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개월간의 긴 방학을 마치고 부푼 기대감과 함께 2023년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학교로 돌아온 학생들은 플라보게 자랐고 여전히 건강한 모습에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첫번째 주간동안 날씨는 화창하고 뜨거웠는데 금요일 오후의 시원한 빗줄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학교소식>

드디어 펜데믹을 지나 정상적으로 2월 6일 2023년 첫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제, 치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보 자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골든베리 스쿨 공동체를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분의 좋은 선생님을 더 모셔서 학생수가 많았던 2학년, 3학년을 2개 반으로 나누어 수업하게 되었습니다.

방학동안 43인치 TV를 3개 반에 더 설치하여 모든 학생이 영상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Walkway, 5 스탬플룸, 2스쿨벤 뉴 페인팅, 건물 페



인팅 등 작은공사들을 하여 조금이나마 학생들과 스태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이닝 룸을 마련하고 학교 시작전 오픈을 하고 싶었지만 테이블과 의자가 예상 보다 가격이 높아서 어쩔수 없이 미루게 되었지만 테이블을 직접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기중에 메말랐던 운동장의 잔디를 방학동안 심고 가꾸어 지금은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뛰어 놀다보면 금방 사라지겠지만 학생들을 위한 천연잔디 운동장을 바라보니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작년 내내 기도해 주셔서 훌륭한 졸업시험 성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우간다내 상위 1.5%내)와 비슷한 성적을 받았지만, 펜데믹으로 학

교 수업을 오랫동안 받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해는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소식>

저희 사역의 하나인 돌봄 사역이 펜데믹으로 중지되었지만 스태프자녀중 3명이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정성껏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2명은 싱글 맘의 자녀로 여러분도 함께 후원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올 한해도 중보자님들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 제목 >>

1. 새학기를 맞이한 골든베리 스쿨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도록
2. 상급학교로 진학한 26명의 졸업생이 충실한 학업과 신앙 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좋은 선생님, 친구들을 만나기를 그리고 먼저 좋은 학생과 친구가 되기를
3. 6월에 방문할 KCQ단기선교팀에 예비하신 멤버들이 조인하도록
4. 예비하신 Gate Keeper에게 자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도록

우간다에서 안정근 & 정미향 선교사 올림

책소개



시인 김희승 집사

한영 시집 '가시나무 숲의 하나님'

해마다 사월, 아카시아 꽃향기로/ 못 박힌 주의 발을 씻습니다/ 가시나무 숲이 아름답던/ 높디란 언덕 외로운 나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높

인간은 모든 것을 얻는다.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 묻히고, 그리고 그 속에 언제나 지나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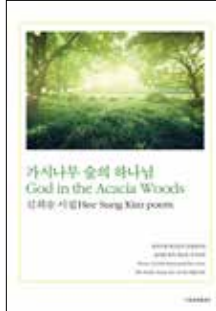
표현 하나 하나 마다 하나님의 사랑 담아 내

다란 언덕 외로운 가시나무..(중략)
시인 김희승 집사가 출간한 한영대역 시집 '가시나무 숲의 하나님'의 내용일부다.
시인은 머리말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그 속에서

연은 아름답고, 위로를 주고, 또 인생의 가르침을 준다"고 말하는 그의 시귀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듬뿍 녹아 있다.
시인은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가고 있는가?"를 반문하

며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에도 큰 교회들이 문을 닫는 안타까움을 본다. 미국이 젊은이들 중심이 되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인이 본 시집을 한영대역으로 꾸민 것도 그 이유다.
본 시집은 '나팔꽃의 함창', '그림 속의 여인', '유월의 공간' 등을 비롯해 50여 편의 시가 한영으로 수록되어 있어 이민 2세

임, 현재는 서울 시립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로는 '영상인식', '인공지능과 그 응용', 'PC 어셈블리어' 등의 기술서적과 '미국, 풍요와 탐욕의 두 거울',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등의 에세이집이 있다.
끝으로 그는 "전공도 아닌 영어 시어서 오류도, 고칠 표현도 많을 것"이라며 "독자들의 오류 지적과 조언 주시면 개정하겠다"고 겸손을 표했다.
저자 연락처 hskim164@gmail.com
(이성자 기자)



제10회 미주청소년

정체성 찾기

효 글짓기&그림 공모전

"HYO" (Filial Piety) Writing & Art Contest

주제: '나의 아버지(엄마)를 하나님께 소개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How would you introduce your father or mother to God?

접수기간
(Acceptance Period)

March 10, 2023 ~ March 31, 2023
(2023년 3월 31일 접수 마감)

시상식 날짜 및 장소
(Award Ceremony)

하나교회 / 04/22/23 Sat. 2PM
(79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제출양식

*글짓기: 3 Page (letter Size, 12pt)
그림: 14" x 17" (Crayon, Watercolor, Acrylic Paint, etc)

접수대상

Kindergarten ~ 12th grade

참가비

\$20 (per work)
(check payable to Hyosarangus or Venmo : Hyosarangus Mission)



수상상금

대상: 2명 \$500 (글짓기 1명, 그림 1명)
최우수상: 4명 \$300 (글짓기 2명, 그림 2명)
우수상: 6명 (글짓기 3명, 그림 3명 \$200),
헤이븐 장학상: 3명

접수방법



* QR코드를 찍어보세요
접수를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호사랑선교회 홈페이지](http://www.hyosarangusa.org)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엄마)를
하나님께
소개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의전화 | (714) 670-8004, 714-833-2710, 김영찬 목사 (562) 833-5520
홈페이지 | www.hyosarangusa.org E-mail | hyosarangus@gmail.com
주소 |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lifornia 90621

“덜 말하고 더 듣고 배우라!”

www.jeffvanderstelt.com, 제프 밴더스텔트 목사에게 배우는 일상에서 복음 전하기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더 사랑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종교적 자만심이 복음을 가로막아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이해심과 배려가 많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신념을 이해해주길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더 유심히 사람들의 깊은 내면의 갈망이 무엇인지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관심

을 가져야 할 것은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복음에 유창해지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듣는 것은 사랑과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다. “복음의 언어의 저자인 제프 밴더스텔트는 대표적인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인 소마 공동체를 이끄는 목회자이다. 그는 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덜 말하고 더 듣고 배우는 습관을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마음을 열라

예수님은 듣기의 달인이셨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더 잘 들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 할 때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를 떠올려야 한다. 때는 햇볕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다. 여인은 다른 사람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시간을 택해 우물가로 왔다. 땀방울을 흘리며 물줄기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녀는 자신과 관계 맺은 남자들의 부인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그녀의 남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겸손한 자세로 그녀에게 물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예수님께 그녀의 영혼을 쏟아냈다. 여기서 우리는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보다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듣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열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가 듣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질수록 상대방의 마음도 열리게 된다.

마음을 나누는 데 실패한다. 이런 우리 때문에 상대방도 자신의 심령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기회를 잃어버린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신은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알게 된다.

는 자가 될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더 이상 좋은 소식이 아닌 것은 아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 보면, 그녀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마을 사람들도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위해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분 동안은 진리를 전할 것이다.”

우리는 경청해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마음의 갈망과 영혼의 깨어짐과 공허함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혼의 생수인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대해야 한다. 성령님께 본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해야 한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고 사랑하라

이 있기에, 하나님에 의해 이 줄거리로 각인되는 것이다.

‘복음에 유창한 귀’는 친구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이야기가 진리인 하나님의 이야기와 맞아 떨어지는지 감지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런 귀를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 가지 악장(창조: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또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무엇에서 발견하는가?, 타락: 그들이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 또는 무엇인가?, 구원: 그들은 자신들의 구세주로 누구, 또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새 창조: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 변화는 무엇이며 그들은 미래에 대한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질문이나 갈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 이야기를 경청할 때 그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단지 우리는 듣고 배우고 사랑하며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우물’에서 헤매고 있다. 듣는 귀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 이를 위해 덜 말하고 더 듣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

마음을 열고, 덜 말하고 더 들으라. 성령께 구하며 그들을 배우고 사랑하라!

덜 말하고 더 들으라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변화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길 원한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사실 복음에 유창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다른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나누어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듣기를 거부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나눌 수는 있어도 복음을 타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는 없다. 즉, 타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좋은 소식만 전파하

는 부족하다. 그들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거 하는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간구해 적용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일이다. 예수님이 그들의 개별적인 필요와 갈망을 채워실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좋은 질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잘 들어주어야 한다.

프란시스 슈뢰퍼(Francis Schaeffer)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누군가와 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처음 55분은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

만날 수 있는지 알려 줄 수 있다.

위로 귀 기울이기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늘 성령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 ‘보혜사’이다(요 14:26). “성령님, 제가 천천히, 차분하게 대화에 임하도록 도와주세요.”, “침묵 가운데 당신이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세요. 지금 이 사람의 이야기와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성경 버전은 ‘보혜사’가 ‘상담가’(counselor)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 그의 깊은 내면의 갈망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의 대화 가운데 성령님께서 상담가가 되어 달라고 초

사람들의 갈망을 듣는 실력을 키우면서 동시에 그들의 전반적인 인생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아야 한다. 우리가 누군가의 심령에 복음을 유창하게 말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며 경청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믿는 복음 이야기’가 있다. 그 복음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다. 모든 사람이 믿는 복음 이야기에는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새 창조의 줄거리가 있다. 물론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모든 사람의 심령에는 영원에 대한 간절한 바람



튀르키예 강진 긴급구호 무너진 튀르키예,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Friends of Hope KAFHI 미주기아대책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긴급구호팀을 파견하여 즉각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현장에 100만 달러 규모의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구호 전담 직원을 파견해 긴급구호 키트 배분을 비롯해, 향후 일상 복구를 위한 재건을 돕습니다. 미주기아대책(KAFHI)은 기아대책(KFHI), 국제기아대책(FH)과 협력하여 이재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6일 새벽 규모 7.8의 강진.

7층짜리 건물도, 사람들의 삶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물 잔해에 깔린 사람들의 신음과 생사를 모르는 가족을 찾는 생존자들의 울부짖음이 뒤섞여 튀르키예 곳곳은 아비규환입니다.

사망자 21,000명 (2023년 2월 10일 기준)

시시각각 이 숫자는 늘어나고 있고, 최대 20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한국인 선교사가 파송된 안디옥 개신교회 (기독교감리회)

지금 돕지 않으면 늦습니다. 튀르키예(터키)를 도와주세요.

송금) Bank: Fifth Third Bank (5/3 Bank)
Account Name: Korean American Food for the Hungry Intl.
Account Number: 7935287420
수표) Pay to the order of : KAFHI
Memo: 튀르키예 긴급구호
보낼 주소: KAFHI, 411 Kingston Ct. Mt Prospect, IL 60056
연락처) 847 296 4555, 703 473 4696, 이메일 kafhi@fh.org

\$50
5인 가족
5일치 식량
FOOD KIT (식량형키트)

\$100
5인 가족 피복/
세면도구 등
NON-FOOD KIT(비식량형 키트)

\$200
5인용 안전/
방한 텐트 지급
SHELTER KIT(셸터형 키트)